



무더운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친 몸을 회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도서관을 찾습니다. 안락한 휴식 공간이 되어주는 도서관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삶에서 힘이 필요할 때 독서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 보는 건 어떨까요. 책과 함께하는 특별한 휴가, 북강스를 떠나봅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누리집([www.nl.go.kr](http://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vol.

314

2023. 07+08

# 오늘의 도서관

오늘의 도서관

vol. 314

2023. 07+08

국립중앙도서관



# 오늘의 도서관

vol.

314

2023. 07+08



표지 일러스트

일러스트레이터 JINZAKA

당장이라도 시원한 바다에 풍덩 빠지고 싶은 계절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도서관에는 무더운 날씨를 이겨낼 특별한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오늘의 도서관> 7+8월호에서는 책과 함께 즐기는 힐링여행, 북캉스를 떠나봅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 제33권 제6호 통권 314호

발행일 2023년 6월 30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손효림, 이은경, 조선희, 배명희

편집 이정화 today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31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부운디자인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열다



## 04 오늘의 칼럼

도서관으로 떠나는  
여행

## 06 오늘 나의 도서관은

여름엔 워터프루프복을 들고  
북캉스를 떠나자

## 10 일상을 펼치다

여름엔 도서관에서  
놀자

도서관을 만나다



## 14 기억의 전시

K-도서관에서 향유하는  
프랑스 문학  
「담대한 프랑스 문학세계,  
프랑스 공쿠르상 수상작展」

## 18 문헌의 가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십칠사찬고금통요  
(十七史纂古今通要) 권17》

##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숲속으로 떠나는 책 여행  
‘오동숲속도서관’

## 26 도서관 여행자

볼로냐의 문화, 역사, 예술의 증인  
이탈리아 볼로냐 시립도서관  
‘아르키진나지오’

## 30 도서관 트렌드

제2의 팽수를 꿈꾸는  
도서관 캐릭터는 누구?

공감을 펼치다



## 34 북데이터

설렘 가득! 여행을 탐색하는 순간  
여행 관련 분야 대출 동향

## 36 오늘의 만남

망가진 책에 얹힌  
반짝이는 기억들  
책 수선가 재영

## 40 K-인문학

‘좋아하면 울리는’  
좋아요 시대를 살아가는 법

## 44 고전 드라마

19세기판  
지구마볼 세계여행  
철 베른 《80일간의 세계일주》

## 48 오감독서

무지개 칼과 장난감 총이  
향하는 곳  
정세랑 《보건교사 안은영》

함께 나누다



##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 58 내 마음의 문장들

2023년 여섯 번째 필사  
정지용 <바다 9>

## 59 오늘의 사진관

여름 휴가철,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오늘의 도서관 7+8월호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블로그 [blog.naver.com/dibrary1004](http://blog.naver.com/dibrary1004)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http://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페이스북 [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http://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유튜브 [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http://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t.or.kr](http://www.kogt.or.kr)



## 도서관으로 떠나는 여행

글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

얼마 전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3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세미나 참석 같은 업무 목적이 아닌, 30년 이상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함께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회고하는 여행이었다. 이 기간에 마침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도서축제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나는 관찰자가 되어 현장에서 책을 사고 읽는 그곳 시민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행지에서 마주친 풍경 앞에서 책을 사랑하고 책과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간적 가치를 제공하고,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은 휴식이 되고, 여행이 되고, 문화가 되고, 산업이 된다. ‘책의 도시’ 전주에서는 특히 그렇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도서관과 여행을 접목한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올해 전주 도서관 여행은 전주를 찾는 여행자들의 취향을 반영해 전주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여 확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주독서대전’,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전주책페(독립출판 북페어)’ 3대 책문화 축제를 시민들과 함께 직접 기획하고 다양한 축제 행사들을 선보이고 있다.

### 도서관과 함께 떠나는 전주의 이색 여행, ‘전주 도서관 여행’

전주 도서관 여행은 전주시가 2021년 4월,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를 위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서 공무원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었다. 처음에는 ‘도서관 여행이라고?’라는 의문과 함께 시작하였으나 ‘한번 해보자!’라는 다짐과 함께 이듬해 2022년 2월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도서관해설사 한 분이 동행한 빨간색 도서관 여행 버스를 타고 전주의 이색도서관들을 투어하며 각 도서관의 특징을 듣고 체험한다. 도서관 여행은 하루코스, 반일코스, 야간코스의 3개 코스로 운영 중인데, 이중 내가 가고 싶은 코스를 고르고 11개의

특성화도서관과 2개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선택하여 즐길 수 있다.

### 전주 3대 책문화 축제의 향연: 전주독서대전, 국제그림책도서전, 책페 속으로!

전주 도서관 여행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도서관 정책 중 하나였다면, 독서 생태계의 기둥인 책 읽는 시민, 책 파는 서점, 책 쓰는 작가, 책 파는 출판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전주의 3대 책문화 축제’가 있다. 회를 거듭하며 전주를 대표하는 책 축제로 자리잡은 전주독서대전은 올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민들이 책과 함께 강연, 공연, 체험, 북마켓 등 독서삼도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한 달 가까이 팔복예술공장에서 진행된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에서는 국내외 저명한 그림책 작가, 연출가, 출판사 등이 참여하여 작년 1회 때보다 알찬 프로그램과 확대된 규모로 약 3만 3,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전주는 우수한 한지를 만들고 조선왕조실록을 유일하게 지켜낸 ‘한지와 기록의 도시’이고, 조선 후기 ‘완판본’을 제작한 출판산업을 이끄는 ‘책의 도시’였으며, 책을 만들고 팔았던 서포가 있는 ‘책문화 도시’였다. ‘책페’는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부르던 책 중개상을 말하는데, 이런 책페를 완판본의 역사와 연계하고 MZ세대를 겨냥한 ‘전주형 독립출판 북페어’로 브랜딩해 올해 7월 처음 개최한다. 행사 장소인 연화정도서관에서는 연꽃 꽃망울이 예쁘게 올라온 덕진공원을 구경할 수 있다. 젊은 독립 출판물 편집장 및 독립서점 대표, 책페 관련 강연도 들을 수 있고 참가자들은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 우주로 1216,<sup>1)</sup> 모야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전용공간,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인 전주 도서관에는 청소년만 입장 가능한 혁신 공간이 있다. 바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내 위치한 ‘우주로 1216’이다. 올여름에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어서 방학을 앞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성인들도 전주 도서관 여행 내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코스를 신청하면 우주로 1216을 견학할 수 있다. 올해 전주혁신도시에도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가 개관했는데, 전주시와 도서관화재단 씨앗이 함께 협업한 어린이 창작공간 ‘모야’에서는 어린이가 스스로 목공예 등 미술도구로 작업하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작년 처음 선보인 전주 도서관 여행은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외부 관광객의 참여가 68%에 이르렀다. 올해도 매월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함과 동시에 판매가 완료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주 도서관 여행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 했던가. 이 말의 뜻대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

스럽지 않아서일 것이다. 참여자는 전주 도서관의 건축과 공간의 특징 그리고 이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고, 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서관의 특징과 전주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또 여행하듯 도서관을 방문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다. 도서관의 다변화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콘셉트의 도서관과 여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전주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서도 여러 도서관 공간을 혁신하는 정책들로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은 이제 일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고, 여행하며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올여름에도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전주 도서관으로 오는 여행객들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 또한 모든 도서관이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추억거리를 안겨주고, 매년 찾아가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되길 바란다. 📖

1) 우주로 1216은 ‘우리가 주인이 되는 공간’을 뜻하고, 트윈세대(12~16세)는 우주인, 그리고 어른들은 지구인으로 불린다



출처: 전주시 도서관본부 도서관산업과



## 여름엔 워터프루프북을 들고 북강스를 떠나자

글, 사진 조아란 민음사 마케팅부 콘텐츠 기획팀 팀장



여름휴가지 하면 해변이나 수영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바로 시원한 물이 있는 장소죠. 시원한 호텔의 풀 사이드나 미국 해변의 썬 배드에 누워 한가롭게 책을 읽는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의 독서 로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물과 책은 전통적으로 가까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 이로 만든 책은 물에 젖으면 바로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고,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만 해도 변형이 올 수 있는 것이 책이니까요. 마케터인 제가 처음으로 '워터프루프북'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순간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돌을 가공해 만들어 물에 젖지 않는 미네랄 페이퍼  
1톤 사용 시 환경 보호 효과

산림 보호



큰 나무 20그루 보호

수자원 보호



물 2만 8,000L 보호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900kgCO<sub>2</sub>eq 감소



40명이 1년간 숨 쉬는 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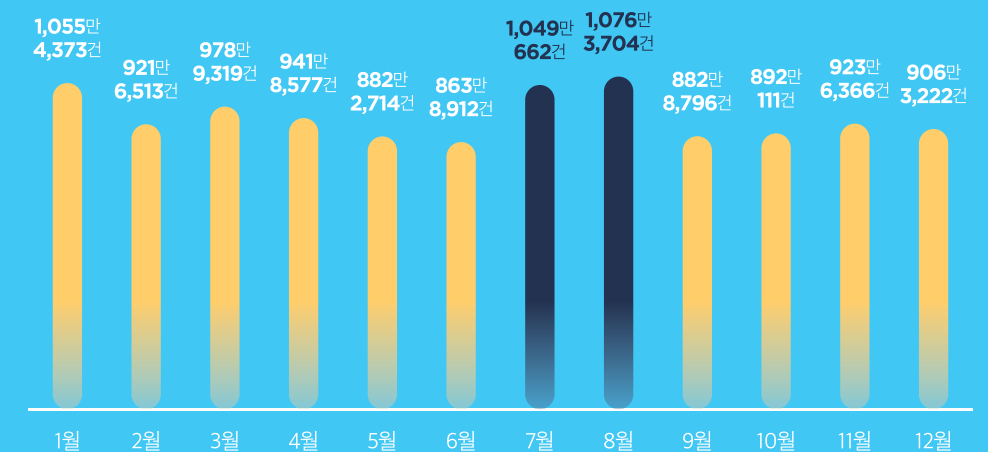
성인 1만 4,000명 1일 물 섭취량  
(WHO 권장기준)



자동차 세게일주 3번

자료출처: 미네랄 페이퍼 한국총판 (주)유니에코 공식 사이트(mineralpaper.co.kr)

### 2022년 공공도서관 월별 이용자 대출 건수



자료출처: 도서관 정보나루(data4library.kr)



### 북캉스와 워터프루프북

매년 여름이 되면 모든 출판사와 서점에서는 ‘북캉스’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휴가지에서 읽기 좋은 책들을 추천하기 바쁩니다. 빌 게이츠나 버락 오바마가 휴가 시즌에 맞춰 추천한 책들은 꼭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름은 정말로 책을 읽기 좋은 시즌일까요?

방학이 있는 학생들뿐 아니라 여름휴가를 떠나는 직장인들에게도 여름 시즌은 평소 미뤘었던 ‘독서’를 하기에 좋은 진짜 독서의 계절입니다.

도서관 정보나루에 따르면 작년 공공도서관 대출량은 7월 1,049만 662건, 8월 1,076만 3,704건이었으며, 월별 중에서 8월이 가장 높은 대출량을 보였습니다. 또한 가을철인 9~10월과 비교했을 때 여름철인 7~8월의 대출량이 19.7%나 높았습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 대출량의 추세는 서점의 도서 판매량 추이와도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여름은 책 읽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계절인데요. 그래서 책을 들고 떠나는 북캉스에 대한 로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북캉스를 떠나자’라는 키워드를 습관처럼 사용하던 제가 직접 ‘해변에서 책 읽기를 시도했을 때’, 어떤 의미의 ‘북캉스’는 사실상 불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젖은 손과 눅눅한 모래 그리고 종이책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휴가지에서 물놀이와 독서는 매끄럽게 연결되는 동작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두 가지 활동이었습니다.

### 워터프루프북 사용 TIP

워터프루프북은 물에 빠지더라도 책이 찌글찌글해지지 않고 물이 튀겨도 종이 표면에 흘러내린다. 접착 방식이 아닌, 실 제본 방식으로 제작되어 날장이 떨어질 염려도 없다. 물속에서 책을 읽은 후에는 젖은 수건을 말리듯 잘 펼쳐놓고 건조시킨 다음 보관하면 된다.



그렇게 여름철 물놀이와 독서가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워터프루프북을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워터프루프북이 탄생했습니다.

### 신기한 종이 미네랄 페이퍼

그렇게 처음 방수 종이를 찾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테스트한 종이는 기존의 종이에 ‘코팅’ 처리를 한 용지들이었어요. 옥외 포스터나 방수가 되는 스티커 등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샘플 종이를 받아 물컵에 오랫동안 담가봤는데 변형이나 손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워터프루프북을 제작하기로 한 업체에서 단순 코팅 용지가 아닌 ‘미네랄 페이퍼’라는 방수 종이를 먼저 떠올렸죠.

미네랄 페이퍼는 이름 그대로 돌을 가공하여 만든 일종의 돌종이로 스톤 페이퍼로도 부릅니다. 개발된 지 10년이 넘는 종이이지만, 높은 단가의 수입지로 일반 종이보다 무게도 더 나가고 인쇄도 어려워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дай버들이 쓰는 수첩의 용지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네랄 페이퍼는 채석장에 버려진 돌을 사용하여 가공하는 종이로 제작 시 나무로 만드는 종이에 비해 물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이 적을 뿐 아니라, 자외선과 지열에 의해 광분해되는 소재로 폐기 시에도 부담이 적은 친환경 종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젖지 않는 종이인 미네랄 페이퍼의 발견과 사용으로 전에 없던 워터프루프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필자의 회사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여름 한국문학, 세계문학, 고전 등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워터프루프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책은 물에 약하다는 기존의 한계를, 아름다운 디자인과 친환경 소재의 미네랄 페이퍼를 이용해 극복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를 받으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 새로운 독서의 맥락을 만든다

매해 여름 워터프루프북이 독자들을 만나면서 전에 없던 책을 둘러싼 재미있는 풍경과 이야기들이 쌓여갑니다. 튜브나 패들보드를 타고 물놀이와 책 읽기를 번갈아 하는 풍경, 얼음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 밖으로 스며 나오는 물기에도 끄떡없는 모습. 심한 다한증이 있어 마음 졸이며 책을 보는데 워터프루프북은 마음 편히 읽어도 되는 책이란 이야기.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읽다가 손가락을 놓쳐도 괜찮다는 것과 늦은 저녁 따뜻한 욕조에 들어가서 책을 읽는 로망이 비로소 실현되었다는 이야기까지요.

책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믿을 만한 정보,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문장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책은 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에 더해 종이를 바꿔보는 것으로 ‘책’이 읽히는 다양한 공간과 맥락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워터프루프북이라는 실험을 통해 알아갑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책들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길 기대합니다. ☺



매해 여름 워터프루프북이 독자들을 만나면서 전에 없던 책을 둘러싼 재미있는 풍경과 이야기들이 쌓여갑니다.



## 여름엔 도서관에서 놀자

글 이주영

사진 종로구청, 광명시 하안도서관 게임창작소,  
F1963 도서관, 꿈이랑도서관

여름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다. 가을의 선선함이 책 읽기에 제격이라지만, 여름철 독서가 가진 '장점'이 더 많다. 방학과 휴가를 이용해 걱정하고 책 읽는 시간을 계획할 수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등 많은 도서관들이 추천하는 책도 있으니, 무엇을 고를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고 쾌적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피서를 즐기는 북캉스(Book+Vacance)와 책을 소재 삼아 휴가를 떠나는 북케이션(Book+Vacation)이 유행하는 이유도 여름철 독서와 도서관이 주는 '쉼'의 매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숲과 바다, 재미있는 게임과 맛있는 음식까지 곁들일 수 있는 도서관들이 있다. 휴가철에 찾기 좋은 이색 도서관과 주변 즐길 거리를 묶어 소개한다.

### 서울 북악산에 숨겨진 숲속 작은 쉼터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서울 종로구의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은 북카페로 꾸며진 작은 도서관이다. 북악산 기슭에서 삼청천 계곡을 따라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진 숲속에 있어, 도심 속 여름 휴양 도서관으로 안성맞춤이다. 건물 보수를 위해 1월부터 문을 닫았다가 지난 6월 말 재개관해 더욱 반갑다. 공원 입구의 매점이 폐업했던 자리에 자그마하게 지어진 도서관이라 열람석이 50석에 불과하지만, 넓은 창으로 북악산의 녹음이 와락 안겨와 부족함이 없다.

도서관의 작은 안뜰을 지나 숲속으로 난 순환 산책길을 따라 걸어도 좋고,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로를 따라 800m만 더 오르면 서울시 우수 조망 명소로 지정된 말바위 전망대에서 남산타워 아래 서울 시내를 한눈에 즐길 수도 있다. 아이와 도서관을 찾는다면 유아숲체험장도 둘러보자. 놀이기구와 모래터가 있는 동심의 숲, 곤충아파트와 나무실로폰이 있는 숲속의 숲, 고즈넉한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가 일품인 물의 숲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싱그러움 여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 서울 종로구 북촌로 134-3 삼청공원 내



광명시 하안도서관 게임창작소 ▶ 경기 광명시 철망산로 46

### 도서관에서 책 읽다가 게임 하면서 잠시 쉬어요 광명시 하안도서관 게임창작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도서관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북캉스 이용자가 많이 찾는 곳이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다가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땐 게임을 하며 놀 수 있어서다. 도서관 3층에는 전국 최초의 게임 분야 메이커스페이스인 게임창작소가 있다. 이곳에서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게임 체험을 비롯해 코딩, 메타버스, 게임 제작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 게임 체험존은 초등학교생부터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5가지 게임 기기가 마련되어 있다. VR 롤러코스터 시뮬레이터를 타고 공룡 세계나 심해 같은 가상현실 속을 탐험하고, 가족이 함께 스크린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다. 체험존은 이용객이 많아 네이버 예약에서 사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현장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

하안도서관의 7~8월 여름 특강 프로그램인 '우리 역사 게임 만들기'도 주목할 만하다. 독서로 역사를 배우고, 코딩교육으로 역사 콘텐츠 게임을 제작한다.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7월 강좌에는 단군신화, 한산도 대첩, 항일 의병운동에 대해 배우고 게임을 만든다. 8월에는 암행어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등을 소재로 하는 특강이 마련된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3·1 만세운동에 대해 배우고 이를 게임으로 재현하는 강좌가 열린다. 여름 특강 프로그램은 하안도서관 문화행사 게시판에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만나는 아트 라이브러리(Art Library) F1963 도서관

7개 해수욕장을 보유한 바다의 도시 부산. 여름 휴가지로 소문난 부산의 추천 여행코스에 빠지지 않는 도서관이 있다.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F1963 도서관이다. 미술, 건축, 사진, 음악, 예술 분야의 전문 도서를 비롯해 희귀 서적과 음반을 갖춘 예술 전문도서관으로,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작품들이 가득해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만 16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고, 유료 회원제(연회비 일반 10만 원, 고등·대학생 5만 원)로 운영된다. 유료 회원은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예술 아카데미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비회원은 이용료 5천 원을 내고 3시간 동안 입장 가능하다.

F1963은 도서관 외에도 미술품 전시장, 클래식 공연장, 서점, 카페, 식당, 산책로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기도 하다. 1963년부터 2008년까지 와이어를 생산했던 공장을 개조한 곳이라 건축물을 감상하는 재미도 선사한다. 광안리와 해운대 해수욕장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어, 주요 관광명소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다. 토요일에 방문한다면 밤 8시와 10시에는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가자. 드론 1,500대로 밤바다를 수놓는 '광안리M드론라이트쇼'가 환상적인 밤을 선물할 것이다.



F1963 도서관 📍 부산 수영구 구락로123번길 20



꿈이랑도서관 📍 경남 통영시 산양읍 둔전길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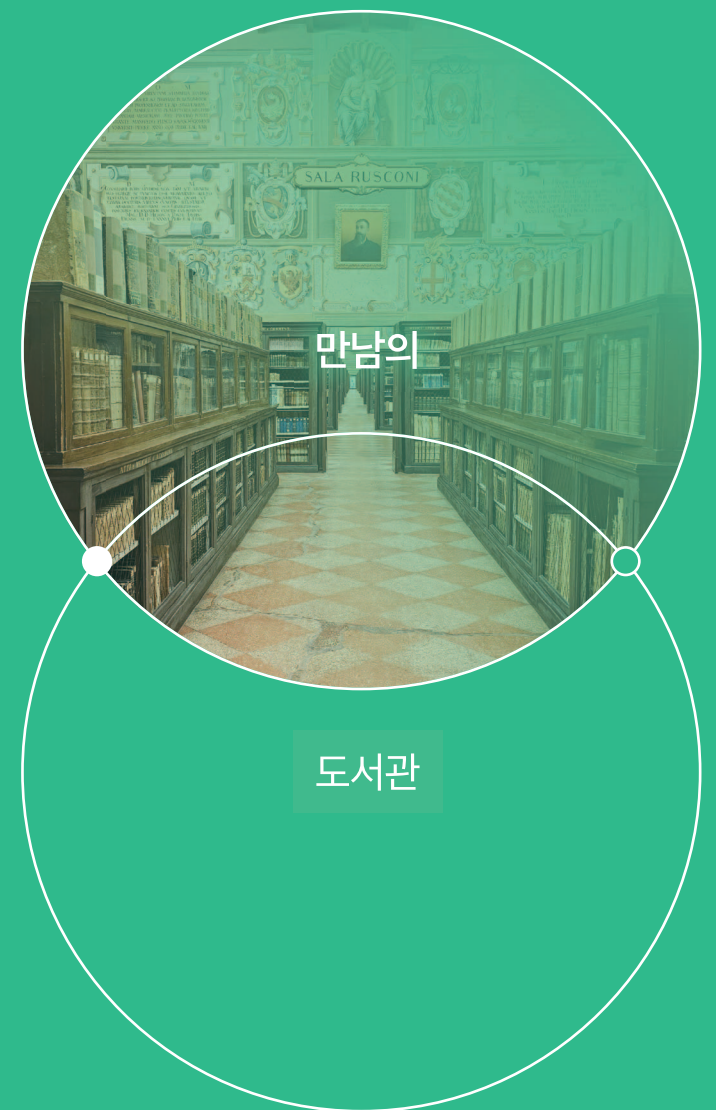
## 미식의 도시 통영을 담은 어린이 미각도서관 꿈이랑도서관

해안 도시 통영은 제철 식도락 여행지로 유명하다. 봄에는 도다리썩국, 여름에는 장어, 서늘한 계절이 되면 굴과 물메기를 즐기러 가야 한다. 그뿐인가. 총무김밥, 꿀빵, 졸복국, 시락국, 빼빼기죽(말린 고구마죽)까지 미식의 도시다운 별미로 가득하다. 조선시대 경상·전라·충청 삼도 수군을 지휘하던 통제영과 중앙정부의 교류가 잦았던 연유로 다양한 궁중음식이 민간으로 전해져 정갈하면서도 화려한 음식 문화를 자랑한다.

꿈이랑도서관은 이처럼 먹거리가 풍부한 통영의 특색을 담아 2021년 국내 최초의 어린이 미각도서관으로 개관했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로비 바닥 전체가 통영의 푸른 바다 그림으로 넘실대고, 자료실인 '맛있는 서재'에는 전 세계의 음식과 요리법을 담은 책이 가득하다. 요리체험실 '동백의 주방'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고 관련 음식을 만드는 오감 자극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8월까지 어른들을 위한 요리 특강도 열린다. 방풍 탕평채, 개조개 유곽, 너물<sup>1)</sup> 비빔밥 등의 통영 향토 음식을 직접 만드는 시간이다. 미각전시실 '통영을 봄'은 조선 수군 식단부터 통영 예술가들이 사랑한 음식까지 다양한 전시물로 꾸며져 있으니 입맛대로 즐겨보자. 더불어 도서관 지척에 있는 박경리 선생 기념관과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전혁림 미술관을 둘러 인문 기행 코스를 완성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

1) 너물: '나물'의 통영 말

# 도서관을 만나다



## 14 기억의 전시

K-도서관에서 향유하는  
프랑스 문학  
『담대한 프랑스 문학세계,  
프랑스 공쿠르상 수상작展』

## 18 문헌의 가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십칠사찬고금통요  
(十七史纂古今通要) 권17》

## 26 도서관 여행자

볼로냐의 문화, 역사, 예술의 증인  
이탈리아 볼로냐 시립도서관  
'아르키진나지오'

##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숲속으로 떠나는 책 여행  
'오동숲속도서관'

## 30 도서관 트렌드

제2의 펭수를 꿈꾸는  
도서관 캐릭터는 누구?



# K-도서관에서 향유하는 프랑스 문학

「담대한 프랑스 문학세계,  
프랑스 공쿠르상 수상작展」

자료제공 국립중앙도서관

## 에드몽 드 공쿠르와 공쿠르상 창립

공쿠르상 수상 작품 속 몇 개의 문장을 한국어와 불어로 벽면에 새겨놓은 전시의 도입부를 지나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은 ‘에드몽 드 공쿠르와 공쿠르상 창립’이었다. 에드몽 드 공쿠르(Edmond de Goncourt, 1822~1896)의 일대기부터 아카데미 공쿠르 창립, 공쿠르상 제정에 대한 설명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01

02



03

국립중앙도서관과 주한프랑스대사관은 지난 5월 25일(목)부터 6월 25일(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담대한 프랑스 문학세계, 프랑스 공쿠르상 수상작展」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공쿠르상은 노벨문학상, 영국의 버커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린다. 상금은 10유로에 불과하지만, 공쿠르상 수상 작품은 발표된 직후부터 프랑스어권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상자는 공쿠르상 수상 작가라는 신분과도 같은 영예를 누리게 된다. 아카데미 공쿠르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진 이번 전시는 공쿠르상의 역사적 개요와 함께 수상작들을 시대별로 나누어 보며, 대담하고 독창적인 20세기 프랑스 문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마련되었다. 프랑스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었던 특별한 순간, 담대한 프랑스 문학세계로 함께 떠나보자.

- 01 「담대한 프랑스 문학세계, 프랑스 공쿠르상 수상작展」 전시실 입구
- 02 전시 도입부 '공쿠르의 빛나는 문장들'
- 03 공쿠르상 수상작품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공간

공쿠르상은 1822년 프랑스 낭시(Nancy)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에드몽 드 공쿠르의 유언에 따라 제정되어 1903년부터 수여되기 시작했다. 에드몽 드 공쿠르의 문학적 업적은 거의 모두 동생인 쥘 드 공쿠르(Jules de Goncourt, 1830~1870)와 함께 이루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쿠르 형제는 19세기 프랑스 자연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프랑스의 대표적 자연주의 소설가인 에밀 졸라도 공쿠르 형제와 예술, 문화적으로 교류하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쿠르 형제는 집, 소장품, 철학, 글쓰기 등 모든 것을 공유했을 정도로 친밀했고, '쥘에드몽



(Juledmond)’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상징화되며 ‘문학적 쌍둥이’라는 흔치 않은 예를 만들어 냈다.

에드몽의 유언에 따라 형제가 생전에 희망했던 대로 창립된 문학협회는 오늘날 ‘아카데미 공쿠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프랑스 문학을 살아 숨 쉬게 하는 공쿠르상을 주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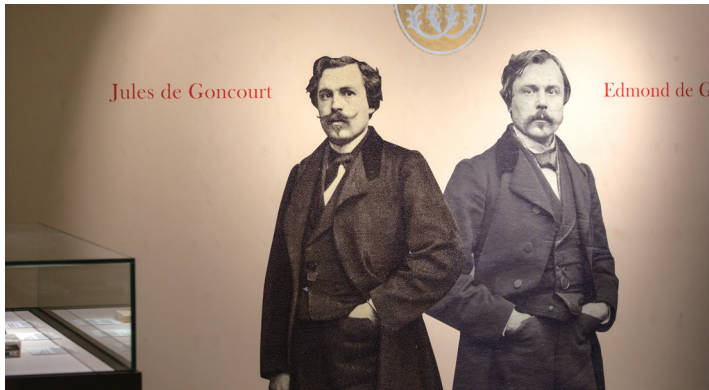
공쿠르 문학상 수상작

다음 공간은 공쿠르 문학상 수상작을 선보이는 곳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장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사회를 반영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끌어가기도 하는 문학의 이 두 사명 사이에서 탄생한 공쿠르상 수상작을 시대별로 나누어 전시하였다.

전쟁과 이데올로기 갈등 속 인간의 모습을 그려낸 ‘1900~1940년대’, 개인적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진 ‘1950~1970년대’, 다양성을 새로운 가치로 삼은 ‘1980~1990년대’, 보편성과 평화를 향한 열망이 뚜렷한 ‘2000~2020년대’로 시대를 구분하여 공쿠르상이 프랑스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20세기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보여 주었다.

1916년 앙리 바르뷔스 《포화》, 1954년 시몬 드 보부아르 《레 망다랭》, 1975년 에밀 아자르 《자기 앞의 생》, 2021년 모하메드 음부가르 사르 《인간들의 가장 은밀한 기억》 등 역대 공쿠르상 수상작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며, 프랑스 독자들의 역사에 한층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04



05

04 동생 질 드 공쿠르와 형 에드몽 드 공쿠르

05 공쿠르상 수상작품들

06 역대 공쿠르상 수상자와 수상작 전시 모습

07 '제1회 공쿠르 문학상 in 한국' 행사 소개 공간

06



제1회 공쿠르 문학상 in 한국

전시 끝머리에는 주한프랑스대사관 주최로 올해 처음 진행된 ‘공쿠르 문학상-한국’ 행사를 소개했다. ‘공쿠르 문학상-한국’은 한국 내 프랑스 관련 교육기관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토론과 투표를 통해 공쿠르상 수상작을 결정한다. 전 세계 35개국에서 각각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 프랑스 현대 문학을 각국의 출판사들이 더욱 많이 번역 출간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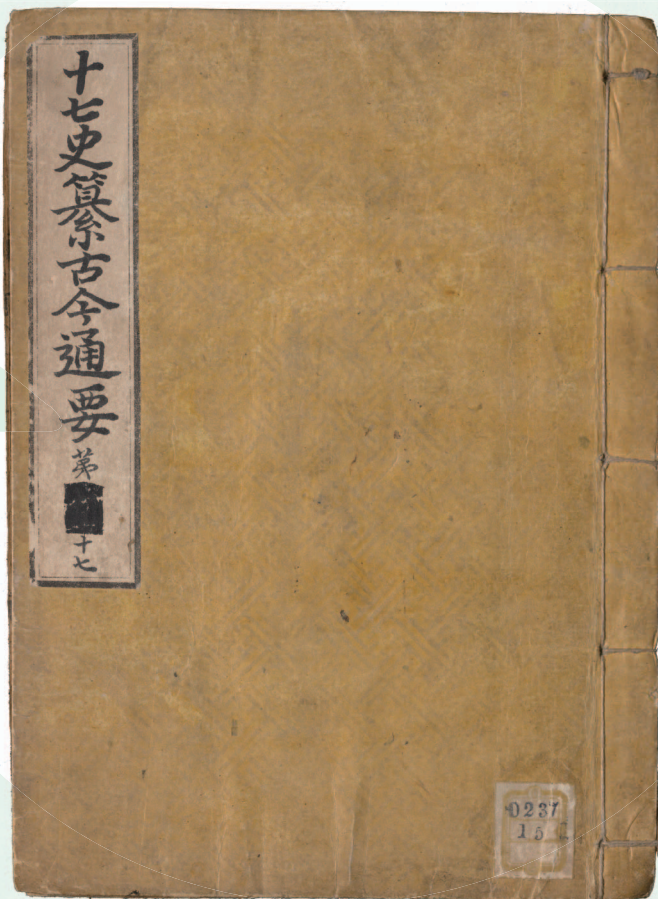
제1회 ‘공쿠르 문학상-한국’에서는 2021년 공쿠르 문학상 수상자인 모하메드 음부가르 사르가 홍보작가로 초청되어 한국 독자들과 토론과 심사를 함께했다. 한국 독자들 역시 2022년 공쿠르상의 영광은 브리짓 지로의 《비브르 비트》에 안겨주었다.

프랑스어권 문학은 우리나라에서 영어, 일본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번역되어 출판되고 있다. 프랑스와의 문학적 공유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번 전시를 발판 삼아 양국의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K-도서관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



#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 권17》

글 이기봉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관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01

제1회 도서관의 날인 4월 12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도서관캠프’가 열렸다. 16개의 몽골텐트 부스가 설치되었고,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하여 도서관 관련 11개의 단체가 참가했다. 혹시 한산하진 않을까 많이 걱정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다. “여기 좀 봐주세요!”, “안 봐도 좋으니 한 번 들어와 보세요!” 호객행위가 따로 없다. 공짜 선물까지 준다. 부스마다 참여 단체의 홍보가 경쟁적으로 뜨겁게 펼쳐졌다. 이익을 위한 호객행위가 아니니 보기에 참 아름다웠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서는 《십칠사찬고금통요 권17》(1책), 《동의보감》(25책) 등 국보 2종, 《석보상절》(1책), 《경국대전》(2책), 《목장지도》(1책), 《청구도》(2책) 등 보물 4종의 고문헌 영인본을 갖고 참여하였다. 감사하게도 국립중앙도서관 몽골텐트 2개 부스의 정 가운데에 고문헌 코너를 띄어 마련해 주셨다. 이날만큼은 고문헌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인공이었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주신 만큼 그에 부응하기 위한 부담도 컸다. 까만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라~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과연 고문헌이 주인공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성공했다!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십칠사찬고금통요 권17(청구기호: 古貴0237-15)》을 함께 살펴보자.

호객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참가자들이 우리 고문헌 앞에

서서 호기심을 보였다.

책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객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참가자들이 우리 고문헌 앞에 서서 호기심을 보였다. 먼저 《청구도》, 이름은 생소한 것 같은데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김정호의 작품이라 말하니 이내 이리저리 넘겨본다. 두 번째로 《목장지도》, 이름도 쉽고 ‘살곶이목장’의 지도 속 섬세한 말들의 그림이 살아 숨 쉬는 것 같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본다. 세 번째로 《동의보감》,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 허준의 작품이니 모르는 이가 없다. 네 번째로 《경국대전》, 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본 우리나라 최고의 법전이라 이리저리 만져본다. 다섯 번째로 《석보상절》, 금속활자본 한글의 모양이 너무나 예쁘다며 감탄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십칠사찬고금통요 권17》,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의 이 책이 국보라고요?”라는 반응이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데요?”

처음 보지만 우리 역사를 새롭게 볼 만한 엄청난 내용이라도 기록되어 있어 국보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의 질문인 것 같다.

“내용은 별것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책인데, 익히 다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십칠사찬고금통요》 제목에서 십칠사(十七史)는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 송서(宋書), 남제서(南齊書), 양서(梁書), 진서(陳書), 후위서(後魏書), 북제서(北齊書), 주서(周書), 수서(隋書), 남사(南史), 북사(北史), 신당서(新唐書), 신오대사(新五代史) 등 중국 고대부터 송나라 이전까지의 17개 역사서를 가리킨다. 이들 17개의 역사서는 엄청난 양을 자랑하여 개인이 모두 섭렵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원나라 사람인 호일계(胡一桂)가 17개 역사서의 내용 중 고금에 통할 만한 요점만 뽑고 자신의 논평을 붙여 편찬한 책이다.

그런데 현재 이 17개 역사서의 원문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 《십칠사찬고금통요 권17》을 통해 우리의 역사는커녕 중국의 역사도 새롭게 볼 특별한 내용이 있을 리 없다. 그러나 내용 때문에 국보가 되었을 가능성은 0.0001%도 없다. 게다가 《십칠사찬고금통요》 전체도 아니고 겨우 17권 한 권만 남아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 42행 성서보다 43년이나 빨라요

“그러면 도대체 왜 국보가 된 건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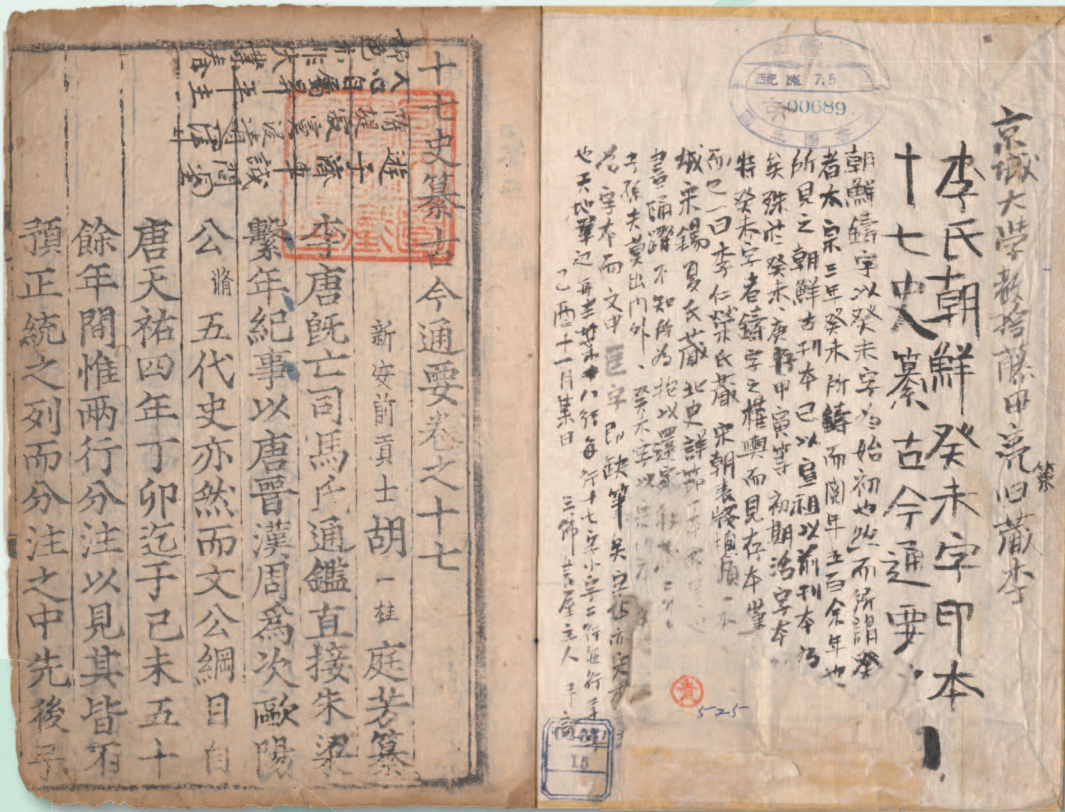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의 질문이다. 책 모습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다면 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 42행 성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1455년에 금속활자로 인쇄한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속활자’라는 말을 들으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직지(直旨)’를 곧바로 떠올립니다. 직지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 42행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선 1377년에 금속활자로 인쇄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잊고 있는 소중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 42행 성서보다 앞선 금속활자본 책들이 많은데, 그런 책들이 ‘직지’ 때문에 모두 묻혔습

01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십칠사찬고금통요 권17》



02



우리나라에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  
42행 정서보다 앞선  
금속활자본 책들이 많은데,  
그런 책들이 ‘직지’ 때문에  
모두 묻혔습니다.

02 오른쪽 면에 일제강점기 때  
기록된 ‘이씨조선 계미자  
인(쇄)본 십칠사찬고금통요  
(李氏朝鮮癸未字印本  
十七史纂古今通要)’란 문구가 보인다

03 본문은 대자(大字) 한 줄,  
세주는 소자(小字) 두 줄로 배열

니다. 지금 앞에서 보고 계신 국보 《십칠사찬고금통요 권17》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1403년  
계미년에 주조한 금속활자 계미자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 42행 정서보다 43년 앞선  
1412년경에 간행한 금속활자본 책입니다. 그래서 국보가 된 겁니다.”

“예, 그래요? 이게 그런 책이에요?”

그제서야 놀랍다는 듯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갑자기 소중하게 넘겨본다.

“그 옆에 있는 《석보상절》도 한자는 1434년 갑인년에 주조한 금속활자 갑인자로, 한글  
은 한글 반포(1446년) 직후인 1447년 무렵에 주조한 한글 금속활자로 1447년에서 1449년  
사이에 인쇄한 책입니다.”

“한글 금속활자도 있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조선은 금속활자의 나라

“《석보상절》 옆에 있는 《경국대전》도 갑인자로 1500년대 전반기에 인쇄한 금속활자본  
책입니다. 조선은 금속활자의 나라라는 사실 모르셨죠?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전임 봉  
성기 학예연구관의 조사에 의하면 국립중앙도서관만 하더라도 조선에서 간행된 금속활자  
본 책을 8,000권 넘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은 발에 치일 정  
도로 흔했습니다.”

03



구텐베르크의  
42행 정서보다 빠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금속활자본 책만 해도 무려  
23종 52책이나 된다.

구텐베르크의 42행 정서보다 빠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금속활자본 책만 해도 무려  
23종 52책이나 된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이전에 간행된 금속활자본 책은  
170종 521책이다. 국립중앙도서관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  
앙연구원 장서각 등 대량의 고문헌 소장처들까지 통계를 내본다면 얼마나 많겠는가? 《십  
칠사찬고금통요 권17》, 책 모습도 볼품없고 책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것이지만 프랑스 국  
립도서관이 소장한 ‘직지’에 가려 빛을 보고 있지 못할 뿐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아니 자랑해  
야 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찾아보니 금속활자본 계미자로 1420년 이전에 간행한 금속활자본 책도 12종 13책이나  
된다. 그리고 1592년 이전 조선에서는 한자 금속활자를 계미자(1403년), 경자자(1420년),  
갑인자(1434년), 경오자(1450년), 을해자(1455년), 정축자(1457년), 무인자(1458년), 을유자  
(1465년), 갑진자(1484년), 계축자(1493년), 병자자(1516년), 경진자(1580년), 을해자체경서  
자(1580년대) 등 무려 13번이나 주조하였고, 한글 금속활자도 갑인자 병용 한글자(1447년  
경), 을해자 병용 한글자(1461년), 을유한글자(1465년), 을해자체경서한글자(1580년대) 등  
4번이나 만들었다.

조선 후기를 제외해도 이 정도니 고려만이 아니라 조선의 금속활자도 세계에 대놓고 자랑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아닌가? 《십칠사찬고금통요 권17》을 통해 ‘직지’에 가려진  
우리의 수많은 금속활자본 책들이 부활의 찬가를 부르며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해 본다. ㉠





도서관에서  
숲을 체험하며  
자연과 친해지다

## 숲속으로 떠나는 책 여행

### ‘오동숲속도서관’

취재 신수빈 사진 정인수, 오동숲속도서관

도서관은 도심을 벗어나 산과 바다 등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숲을 마주할 수 있는 숲속도서관에서는 자연 속에서 책을 읽으며 힐링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서울시에는 이처럼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원 내 책심터인 숲속도서관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목재파쇄장에서 독서와 치유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서울 성북구 오동숲속도서관을 찾았다.

#### 지속가능한 자연친화 도서관

숲속에서 책을 읽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오동숲속도서관. 성북구의 대표 생활권 공원인 오동근린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오동숲속도서관은 서울시의 7번째 공원 책심터이자 성북구의 16번째 구립도서관으로 올해 5월 2일에 개관했다.

원래 도서관 부지는 먼지와 소음이 끊이지 않아 가동을 멈추고 방치되어 있던 목재파쇄장이 있던 장소였다. 이렇게 민원이 들끓었던 장소가 주민들이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특별한 사연을 품은 오동숲속도서관의 건립에는 마을건축가가 참여하여 오동근린공원 자락길을 형상화한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냈다. 연면적 130평에 지어진 오동숲속도서관은 목구조를 통한 지붕과 중첩된 공간을 표현해 책심터의 개념을 극대화시켰다.

80여 평의 실내공간은 독서공간, 어린이책 공간, 안내데스크, 회랑,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서와 아동서를 포함해 7,700여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나뭇결이 느껴지는 서가와 싱그러운 식물들이 반겨주고, 높은 층고로 개방감이 좋아 확 트인 시야를 자랑한다. 또한 창문으로 하늘과 구름 그리고 숲을 보며 분주하고 복잡한 도시의 일상이 잠깐 멈춰지면서 고요한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월곡산 정상이 보이는 창가의 독서공간은 주민들이 가장 편안해지는 공간이며, 식물에 둘러싸인 중앙 공간 또한 시민들의 눈길과 발길이 향하는 곳이다.

특히 오동숲속도서관은 공원이라는 환경과 건립 배경, 성북구의 풍부한 도서관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과감히 비워내려고 노력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뻘뻘하지 않은 공간과 서가에 만족해하고 더 나아가 책 읽기에 한 발짝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월곡산 정상이 보이는 창가의 독서공간에서 주민들이 책을 읽고 있다







도서관 회랑에서 들꽃압화투명 책갈피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프로그램

5~6월에는 오동숲속도서관 개관기념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과 현장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일반 도서관과 달리 공원 속 도서관의 환경적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으로 꾸려져 높은 현장 참여율을 나타냈다.

먼저 아이들이 직접 만든 곤충 눈 목걸이로 도서관 주변에 핀 야생화를 곤충 눈으로 관찰해보는 ‘곤충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곤충처럼 소리를 내는 ‘곤충피리 만들기’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생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득 채워주었다.

도서관과 근접한 들꽃향기원에서 야생화들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는 ‘들꽃압화투명 책갈피 만들기’와 자작나무, 버드나무, 물푸레나무, 아까시나무, 은행나무의 속을 관찰하고 각 나무의 특징을 학습해보며 퍼즐과 퀴즈를 맞추보는 ‘생태 놀이 나무조각퍼즐’은 참여자들에게 생태와 교류하는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생태 프로그램은 공원 속에 지어진 도서관이기에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다. 책만 보는 도서관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을 둘러싼 공원을 즐기는 형태로써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이 부여된 의미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2인 이상 가족이 참여한 ‘정크아트(폐품을 활용한 미술작품) 팝업북 만들기’는 정크 아티스트 안선화 작가와 함께 오래된 동화책 2권으로 새로운 동화책을 만들어보며 가족이

교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이경영 선생님과 함께 선사시대를 공부하고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보는 ‘가족역사 여행’ 프로그램도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 책도 읽고 오동근린공원에서 숲체험도 하고

현재 서울에는 오동숲속도서관을 포함해서 7개의 숲속도서관(공원 책심터)이 있는데, 오동숲속도서관은 성북구 중심에 위치한 오동근린공원 안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일부 운동시설 외에는 다수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없었던 오동근린공원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세대공감 가족형 공원’으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책심터인 숲속도서관을 비롯해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길, 들꽃향기원, 공원 내 황폐한 공간을 재조성하는 등의 복합적이고 집중적인 사업 추진으로 공원이 완전히 탈바꿈되었다.

도서관 입구 앞에 자리한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자연놀이 중심 체험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치유의 숲길은 오동근린공원 내 잣나무림 등 우수한 산림환경을 이용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계절 꽃향기가 나고 꽃과 나비가 있는 들꽃향기원은 아이들의 학습 공간이자 어른들의 힐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동숲속도서관은 공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진 멋진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원을 오랫동안 이용했던 주민들은 공원에 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기뻐하기도 했다.

들꽃향기원에서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생태체험을 하고 있다



#### 바쁜 일상을 벗어나 잠시 쉬어가고 싶은 책심터

주민들의 생활 속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오동숲속도서관은 사람들의 관심사, 연령, 특성 등을 파악하여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고 싶다는 강한 포부를 드러냈다. 특히 주민들이 책 읽기를 비롯해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8~9월에는 커피나 차, 패션, 맥주, 와인, 위스키, 인테리어 등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면서 각자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또 여름밤에는 숲속도서관으로 주민들을 초대해서 도서관의 탄생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주민들이 바라는 숲속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각자의 취향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동아리도 운영할 예정이다.

오동숲속도서관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도서관이지만, 바쁜 일상으로 지친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며 잠시



오동근린공원 자락길을 형상화한 오동숲속도서관

쉬어가고 싶은 도서관, 머물고 싶은 도서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자연을 벗 삼아 주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오동숲속도서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



“오동숲속도서관은 두 번 왔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이번에 들꽃으로 책갈피를 만들어서 매우 뿌듯했어요. 책갈피에 그린 그림은 제비꽃을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덕분에 자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게 되었어요. 책갈피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을 때 사용할 거예요. 앞으로도 오동숲속도서관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리면 좋겠습니다.”

들꽃압화투명 책갈피 만들기 참여자  
오승현 님



“나무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뜻깊었어요. 또 나무 그림과 특징을 서로 연결시켜 보니 나무와 친구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참나무 6형제 이야기도 들어보고, 참나무의 번식을 도와주는 동물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곤충 눈 목걸이를 만들어서 곤충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니 신기했어요. 다른 흥미로운 생태놀이도 함께하고 싶어요.”

생태놀이 나무조각퍼즐 참여자  
김예은 님

#### LIBRARY INFORMATION

##### 오동숲속도서관

- 🕒 **이용** 일반자료실  
평일/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야간무인반납기  
당일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 📅 **휴관**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 📍 서울 성북구 화랑로13가길 110-10
- ☎ 02-6952-1806







## 볼로냐의 문화, 역사, 예술의 증인 이탈리아 볼로냐 시립도서관 ‘아르키진나지오’

글, 사진 조금주

이탈리아에서 붉은 도시라 불리는 볼로냐에는 길이 3,796m 약 600개의 아치가와 약 40km에 이르는 포르티코(Porticoes))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포르티코를 따라 걷다 보면, 다소 의외의 장소에 거의 숨겨져 있는 볼로냐시의 역사적 명소를 만날 수 있다. 바로 볼로냐 시립도서관 아르키진나지오다.

###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의 심장부였던 건물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볼로냐 시립도서관은 아르키진나지오 건물 안에 속해 있다. 아르키진나지오(Archiginnàsio)는 이탈리아어로 ‘최고학부’ 혹은 ‘최고학부의 소재지’라는 뜻으로, 아르키진나지오의 탄생은 ‘볼로냐대학교’와 연결된다. 1088년에 설립된 볼로냐대학교는 1096년에 건립된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와 1209년에 건립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보다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로 알려져 있다. 1562~1563년 사이에 볼로냐대학교의 본관 건물로 지어진 곳이 바로 아르키진나지오다. 이 건물은 볼로냐 시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대학 학과들을 한 지붕 아래 모으도록 스튜디오 설계를 의뢰를 받은 볼로냐의 건축가 안토니오 모란디(Antonio Morandi)가 설계했다. 이후 1803년에 대학이 이전하면서 건물은 대학의 기능을 잃었고, 잠시 초등학교로 사용되다가 1838년부터 볼로냐 시립도서관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 1) 대형 건물 입구에 기둥을 받쳐 만든 현관 지붕
- 2) 문장(紋章): 국가나 단체 또는 집안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상징적인 표지(標識)이며 도안한 그림이나 문자로 되어 있다

아르키진나지오는 르네상스 후기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갖추었다. 건물의 핵심은 중앙 안뜰을 둘러싸고 30개의 아치가 있는 현관으로, 귀족 가문의 저택 안뜰을 연상시키는 데 안뜰과 건물 내부의 방들엔 약 6,000개의 문장<sup>2)</sup>으로 가득하다. 이 문장들은 아르키진나지오를 다녔던 학생과 교수들을 상징한다.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1700년대 말까지 국가별 의원, 교수진 또는 학장들의 비문과 기념비가 학생들의 문장과 함께 세워졌다. 문장 전시의 영광은 학생 단체의 수장으로 선출된 학생들에게만 주어졌다. 이 문장들에는 학생의 이름과 함께 출신 국가 또는 도시가 표시돼 있다.

중앙 안뜰 주변 두 개의 넓은 계단은 대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던 강의실이 있는 2층으로 이어진다. 건물 끝 양쪽에는 두 개의 강의실이 있다. 오른쪽의 ‘레지스티(Legisti)’는 민법과 교회 법대생들이 사용하던 곳으로 현재는 강의실 이외에 공연장으로도 활용된다. 왼쪽의 ‘아티스티(Artisti)’는 철학, 문학, 의학, 수학, 자연과학 및 물리학 학생들이 사용하던 곳으로 현재는 도서관 열람실로 이용된다.

특히 레지스티는 1842년에 이탈리아의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Gioachino Rossini)의 스타바트 마테르(Stabat Mater, 성모애가)가 초연된 것을 기념해 ‘살라 스타바트 마테르(Sala

- 01 살라 루스코니의 방으로 그의 부인이 기증한 의학 관련 희귀자료실인 루스코니홀(Sala Rusconi)
- 02 포르티코로 장식된 아르키진나지오 도서관 입구

02







도서관을 만나다

03

Stabat Mater'로 불린다. 고풍스러운 강의실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우아한 프레스코화로 아름답게 장식돼 있다. 19세기 초 책장으로 개조되어 현재는 군사학, 광물학, 고생물학, 해부학 등 도서관의 중요한 책들이 배가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방 한쪽 구석에 문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입장이 불가한 대신 문의 유리창을 통해 보존서고의 전경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10개의 교실은 현재 도서관의 자료 보존서고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 논란을 넘어 가장 인기 있는 해부학 극장

아르키진나지오에는 도서관 이외에도 한때 논란은 있었으나 끊임없이 사람들이 많이 찾은 공간이 있다. 바로 해부학 극장(Teatro Anatomico)이다. 1637년 볼로냐의 건축가 안토니오 파올루치(Antonio Paolucci)가 해부학 수업을 위해 설계했으며, 전나무와 삼나무로 지어졌다. 과학의 발전 이전 인간의 욕망과 점성술의 영향을 받아 미신적 믿음이 결합된 이 해부학 극장은 용어부터 섬뜩하다. 과거 이곳에서 시체를

03 문장들이 전시되어 있는 도서관 열람실 벽면

04 아르키진나지오 속 의학 역사를 상징하는 해부학 극장

05 사서의 레퍼런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열람실

Sala Di Consultazione

#### 도서관 여행자

해부하는 실험을 진행했었기 때문이다.

방 중앙에는 해부가 이루어지던 하얀 대리석 테이블과 교사용 의자가 놓여있다. 전시된 대리석 테이블은 원래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이 있었는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문객들을 배려해 교체됐다. 중앙 테이블 양옆에는 계단식 좌석을 설치해 관객에게 최고의 시야를 제공하고 마치 원형극장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해부과정을 지켜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천장에는 14개의 별자리와 의학의 수호신인 아폴로를 상징하는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다. 의학 개념에 따라 수술을 진행하거나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별을 참조하는 전통을 따른 것이다.

극장 내에는 다양한 해부학적 자세를 한 매혹적인 목각 조각상들이 존재감을 뽐낸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와 로마 제국 당시의 의학자이자 철학자인 클라우디오스 갈레노스(Claudios Galenos)를 비롯한 고대 역사에서 유명한 해부학자들이다. 그중에서도 걸작은 밀랍인형 제작자 에르콜레 렐리(Ercole Lelli)가 디자인한 두 개의 '스펠라티(Spellati)'다. 스펠라티는 피부가 없는 사람이란 뜻으로, 두 사람의 인체가 교수의 자리를 장식하며 예술과 과학의 연결고리를 표현한다. 수업 시간에 사용될 정도로 디테일이 뛰어나다.

해부학 극장은 1944년 1월 29일 볼로냐 폭격으로 건물 일부가 파괴됐지만, 다행히도 전쟁 직후 잔해에서 회수된 원래의 나무 조각품을 재사용하여 세심하고 충실하게 복원되었다. 이렇듯 해부학 극장은 대학에서 일했던 수많은 의사들을 비롯해 역사상 위대한 의사들을 묘사한 18세기 조각 목상으로 의학 연구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04



#### 볼로냐의 문학, 역사, 예술의 증인

아르키진나지오에는 1801년에 설립된 볼로냐 시립도서관의 역사가 서려 있다. 나폴레옹 시대에 해산된 수녀회의 도서관 유산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볼로냐 시립도서관이 도메니코 수도회를 거쳐 1838년에 아르키진나지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인수와 기증을 통해 책이 유입되면서 아르키진나지오의 장서는 더욱 풍부해졌다. 고자디니(Gozzadini) 가문, 팔라지(Palagi) 가문과 같은 유명한 가문과 학자 및 수집가의 이름이 새겨진 중요한 유증은 지역사회 내에서 볼로냐 시립도서관의 역할을 상기시켜준다. 또한 아르키진나지오의 중요한 유산 중에는 모교의 저명한 교수이며 문학평론가인 루치아노 안체스키(Luciano Anceschi)의 개인 서가가 있다.

아르키진나지오는 역사, 철학, 정치학, 문학, 예술 등 볼로냐 문화에 관한 약 8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다. 또한 약 1만 2,000개의 메뉴 스크립트와 1501년 이전 인쇄본인 인큐네불라(Incunabula) 2,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장서 내용과 유증에 따라 4개의 컬렉션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도부터 전서, 사진, 약 5,000점의 그림과 9,800점의 판화, 780종의 최신간행물 그리고 6,720종의 단종 정기간행물까지 다양한 컬렉션을 보유한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시민 도서관이다.

사서들은 이용자의 요청을 기꺼이 환영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카탈로그 및 서지 검색을 성심껏 도와준다. 또한 이들은 도서관 컬렉션에 관한 이용자나 기관의 서면 요청을 처리하고 도서관을 찾아온 연구자들에게 연구 주제 및 논문 관련 자료를 찾아주는 등 아낌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05

도서관 입장과 이용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만, 해부학 극장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3유로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처음 아르키진나지오를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입장권 구매를 적극 추천한다. 해부학 극장에서 매혹적인 목상 조각들을 감상하며 고대 의학 역사에 흠뻑 빠져보고, 멋진 스타바트 마테르홀의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들과 고서들도 찬찬히 훑어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아르키진나지오는 이 한마디면 충분히 설명될 것 같다. '볼로냐의 문학적, 역사적, 예술적 성장의 주요 증인이다.' ❶

#### | 조금주 |

도서관 건립 컨설팅, 도서관 운영자문, 사서 교육 등 도서관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넥스트 라이브러리(Next Library)>의 대표. 틈날 때마다 세계 각국의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뒤 훌쩍 배낭을 짊어지고 그곳들을 찾아다니며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도서관을 꿈꾸고 있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한 세상의 도서관들》(2020) 등을 집필했다.



#### 여행 더하기

1

#### 이탈리아 볼로냐 시립도서관 아르키진나지오

📍 Piazza Galvani, 1, 40124 Bologna, Italy

🕒 월~금 오전 9시~오후 7시  
토 오전 9시~오후 2시

일요일 휴무

☎ +39-051-276811

#### 여행 더하기

2

#### 마조레 광장(Piazza Maggiore)

중세 및 르네상스 건축물과  
기념물이 있는 볼로냐의 메인 광장

📍 Piazza Maggiore, 40124 Bologna, Italy

🕒 매일 24시

☎ +39-051-658-3111

#### 카부르 갤러리(Galleria Cavour)

다양한 명품삽과 소품삽이 준비한  
볼로냐 대표 쇼핑센터

📍 Via Farini, 14, 40124 Bologna, Italy

🕒 매일 24시

☎ +39-051-222621





## 제2의 펭수를 꿈꾸는 도서관 캐릭터는 누구?

글 박미숙 사진 각 도서관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네모반듯한 책장과 책, 질서정연한 책상과 의자. 뭔가 각지고 뾰족할 것 같은 도서관 분위기는 가끔 큰 숨을 쉬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엄숙함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도서관 앞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해달을 만난다면? 책을 읽고 싶어 바다에서 올라온 거북이가 인사를 하고, 귀여운 까치들이 찡긋 책을 권하는 도서관이 있다면? 하얀 몸에 귀여운 더듬이를 가진 책 요정이 있는 도서관을 만난다면 어떨까? 제2의 펭수를 꿈꾸며 열심히 활약 중인 도서관 캐릭터들을 만나보자.



다독이



책과 증강현실 기술을 결합한 AR책카드

### 증강현실 속에 등장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다독이’

반딧불처럼 빛나는 더듬이, 눈처럼 하얗고 밝은 몸을 가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캐릭터 ‘다독이’는 아이들의 꿈을 모아 이야기책을 만드는 책의 요정이다. 책을 많이 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린이들 마음을 다독여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요정이 그렇듯이 책의 요정 ‘다독이’도 다정하고 신비로운 마법을 부린다. ‘다독이’의 마법이 가장 돋보이는 것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증강현실’ 서비스이다. 다양한 주제들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배우고 즐기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증강현실 콘텐츠는 어린이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마음껏 상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눈으로 읽는 책 읽기를 넘어 움직이는 책 읽기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다독이’와 함께 환상의 세계를 즐길 수 있다.

‘다독이’는 책의 요정답게 어린이들을 다양한 증강현실의 세계로 이끄는 일등공신이다. 증강현실 뮤지컬 ‘잃어버린 책을 찾아서’, ‘AR큐브’ 같은 다양한 콘텐츠 속으로 어린이들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어린이들을 책으로 이끄는 마법사이자, 따뜻하게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다독이’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오프라인 공간뿐 아니라, 집에서도 도서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강북이가 등장한 독서관장 인형극 공연



강북이

### 오늘도 달린다! 강북구립도서관 ‘강북이’

강북이 생일은 6월 5일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 중 도서관 개관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강북이가 등장하면 달라진다. 올해 서울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개관 22주년 기념행사로 진행한 <강북아, 생일 축하해!>에는 많은 시민들이 강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왔다. 도서관 카페는 강북이 생일 파티장으로 꾸며졌고, 강북이와 함께하는 도서관 퀴즈 풀기, 강북이가 등장하는 독서관장 인형극 공연도 펼쳐졌다. 다른 행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즐거워한 건 강북이 효과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강북이는 책을 읽고 싶어 바다에서 강북구로 올라온 거북이다. 뜻은 읽을 강(講), 책 북(Book). 돌리와 함께 강북구를 소개하는 영상에도 출연하고, 근현대사 역사투어도 함께 한다. 강북구 사서들 브이로그에도 등장하고, 강북구립도서관 곳곳을 누리며 활약하느라 매일 정신없이 보낸다. 이렇게 바쁜 강북이를 위해 도서관 직원들은 강북이 탄생설화를 담은 주제가를 만들고, 강북이 모습을 담은 굿즈를 직접 제작하며 열심히 강북이를 응원한다.

‘강북이의 요모조모’는 도서관 일상 프로그램에 도서관 캐릭터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가수 강북이, 요리 강북이, 마술 강북이, 꿀잠 강북이 등 총 10가지 강북이 카드를 제작하고 카드마다 도서관 관련 미션을 부여한 것. 해당 미션을 수행하고 강북이 카드 10장을 모두 모은 어린이들에게 상품을 주고 있다.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도서관 활동에도 참여할 기회도 주고 도서관

홍보도 더 활발해졌다. 6월부터는 ‘강북이’ 스티커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는데, 영상 업로드 이틀 만에 조회 수 2,700여 회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강북이는 활동 범위를 더 늘려갈 계획이다.

### 천 권 읽기 숨은 공신! 중랑구립도서관 ‘가치’와 ‘하루’

서울 중랑구에는 전국으로 소문난 독서문화 사업이 있다. 중랑구립도서관들이 펼치는 <취학 전 천 권 읽기>와 <초등 천 권 하루 읽기>이다. <취학 전 천 권 읽기>는 유아들의 올바른 독서습관을 위한 책 읽기 운동 캠페인이다. 구립도서관은 물론 작은도서관, 영유아 교육기관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5~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1~100권을 읽는 씨앗 단계부터 책의 권수에 따라 떡잎 단계, 새싹 단계, 꽃 단계, 열매 단계 등 총 5단계로 나뉘며 단계별로 독서 여권, 기록장, 달성 배지, 에코백 등 키트를 제공한다. <초등 천 권 하루 읽기>는 ‘매일 읽기’를 강조하기 위해 기획된 초등학교 대상 독서습관 기르기 프로젝트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까지 숨은 공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치’와 ‘하루’다.

가치와 하루는 중랑구를 대표하는 새 ‘가치’를 모티브로 한다. ‘가치’는 취학 전 어린이의 잠재력을 상징하기 위해 알처럼 둥근 형태이며 책 모양 머리 깃과 배 라인, 하트 모양의



하루

가치

취학 전 천 권 읽기 행사



꼬리 깃으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루’는 가방을 멘 초 등학생 모습으로 ‘가치’보다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탄생 했다. 가치와 하루가 펼쳐는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이 사업의 핵심인 단계별 문구 키트의 디자인은 모두 가치와 하 루의 모습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한 단계를 달성할 때마다 주어지는 배지는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소장하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6개의 배지를 모으는 재미도 책 읽기를 즐겁 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가치와 하루는 중앙구에서 펼쳐지는 책 관련 행사에 어김 없이 나타난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 온 가치와 하루 덕분에 있었을까. 이 사업에 함께한 중앙숲어린이도서관은 2022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가치와 하루는 책 읽기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 해 심 없는 날갯짓을 계속할 계획이다.

#### 푸른 동해바다에서 책 읽는 해달, 영덕도서관 ‘호호바다’

영덕 앞바다를 동동 떠다니기만 하는 게 지루했던 해달은 어느 날 바다에 떠내려온 영덕도서관 책을 발견한다. ‘우와 책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였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해달은 결심한다. 영덕도서관의 캐릭터가 되기로. ‘호호바다’는 사전적으로 넓고 넓은 바다를 의미한다. 지식과 정보의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해달처럼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유영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이다.

호호바다



호호바다의 다양한 굿즈들

호호바다는 강북이와 가치, 하루에 비하면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막내다. 올해로 50년이 된 영덕도서관이 내년엔 신축도서관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한 도서관이 되기 위해 고심 끝에 만들어진 캐릭터다. 강아지나 곰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호호바다는 푸른 동해바다와 어울리는 해달이다. 영덕 하면 떠오르는 바다 이미지를 담고 있어 영덕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캐릭터로 급부상했다.

영덕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 가면 눈길 가는 모든 곳에서 호호바다를 만날 수 있다. 책 읽는 나무엔 호호바다 인형들이 달려있고, 여기저기 호호바다 스티커도 만날 수 있다.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 가방에서도 호호바다 인형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는데, 도서관에서 이벤트로 나눠준 이 인형은 열흘 만에 500개가 동이 날 정도로 인기였다. 호호바다 인형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 큰 조형물 호호바다를 집으로 데려가자고 떼쓰는 아이들을 보면 호호바다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바다 향을 물씬 풍기는 호호바다가 앞으로 재탄생할 영덕도서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된다.

#### 도서관의 또 다른 모습, 도서관 캐릭터

‘Character’는 성격이나 특징, 글자를 의미하는 영단어로 서로 다른 독특한 ‘개성’이나 ‘근본’의 의미를 담고 있다.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도서관이 지역과 서비스 내용에 따라 각자의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책의 요정 다독이,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강북이, 책 읽기의 가치를 부각하는 가치와 하루, 영덕 바다 이미지를 가져온 호호바다. 이 캐릭터들은 도서관이 근엄한 이미지를 벗고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한 개성 만점 도서관으로 변신하는 데 앞장선 친구들로 기억될 것이다. 2

#### | 박미숙 |

고양시립 일산도서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에 ‘그림책으로 본 세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 중이다. 저서로 《도서관에 간 외계인》,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손바느질로 만나는 그림책 주인공》 등이 있다.

## 공감을 펼쳐다

공감의

도서관

#### 34 북데이터

설렘 가득! 여행을 탐색하는 순간  
여행 관련 분야 대출 동향

#### 36 오늘의 만남

망가진 책에 얹힌  
반짝이는 기억들  
책 수선가 재영

#### 44 고전 드라마

19세기판  
지구마블 세계여행  
칠 배른 《80일간의 세계일주》

#### 40 K-인문학

‘좋아하면 울리는’  
좋아요 시대를 살아가는 법

#### 48 오감독서

무지개 칼과 장난감 총이  
향하는 곳  
정세랑 《보건교사 안은영》



# 설렘 가득! 여행을 탐색하는 순간

## 여행 관련 분야 대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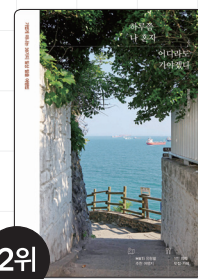


### 국내여행 인기대출도서



1위

**안녕, 나는 경주야:  
동화로 읽는 경주 여행 정보 이야기**  
이나영 지음 | 박정은, 이나영 그림 |  
상상력놀이터 | 2021



2위

**하루쯤 나 혼자 어디라도 가야겠다:  
가볍게 떠나는 30가지 일상 탈출 여행법**  
장은정 지음 | 북라이프 | 2021

**3위 안녕, 나는 제주도야:  
동화로 읽는 제주도 여행 정보 이야기**  
이나영 지음 | 이나영 그림 | 상상력놀이터 | 2022

**4위 이국적인 국내여행지 64: 한스포토가 추천하는  
해외보다 더 좋은 우리나라 여행지**  
이환수 지음 | 책밥 | 2022

**5위 아이랑 제주 여행(2022~2023):  
아이와 엄마·아빠를 위한 가족 여행 가이드북**  
송인희 지음 | 디스커버리미디어 | 2022

### 국외여행 인기대출도서



1위

**동남아 한 달 살기:  
코타키나발루, 다낭, 발리, 베트남, 세부,  
쿠알라룸푸르, 파타야 한 달 살기**  
천서내 지음 | 포르체 | 2022



2위

**리얼 싱가포르(2022~2023):  
싱가포르를 가장 멋지게 여행하는 방법**  
정지은 지음 | 한빛라이프 | 2022

**3위 다낭 100배 즐기기(2019~2020):  
호이안, 후에, 미션, 바나 힐**  
안혜연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 | 2019

**4위 리얼 교토: 고베 나라(2022~2023):  
교토를 가장 멋지게 여행하는 방법**  
황성민, 정현미 지음 | 한빛라이프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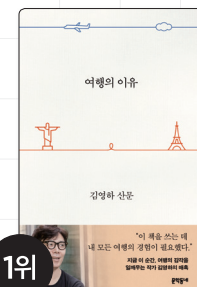
**5위 후쿠오카 100배 즐기기(2019~2020):  
유후인, 벳푸, 기타큐슈, 나가사키**  
RHK 여행콘텐츠팀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 | 2019

최근 6개월간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국내여행 도서는 《안녕, 나는 경주야》가 차지했다. 그 뒤로는 혼자 떠나는 국내 여행과 아이와 함께하는 제주도여행 도서가 뒤를 이었다. 국외여행 분야는 《동남아 한 달 살기》가 인기대출도서로 선정되었다. 휴양지로 잘 알려진 동남아에 관심이 많고 한국과 가까운 일본여행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엔데믹 시대가 열리면서 올여름엔 특히 해외여행을 꿈꾸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다. 그간 여행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컸던 만큼, 여행책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여행지와 여행도서는 무엇일까?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 키워드로 분석한 최근 6개월간 ‘여행 관련 분야 대출 동향’을 함께 알아본다.

자료출처 도서관 정보나루(data4library.kr) 분석기간 2022. 12. 01.~2023. 05. 31.

### 여행에세이 인기대출도서



1위

**여행의 이유**  
김영하 지음 | 문학동네 | 2019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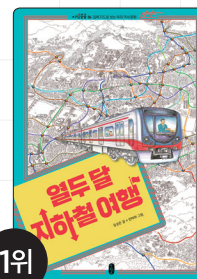
**나는 미니멀 유목민입니다:  
여행 가방 하나에 담은 미니멀 라이프**  
박건우 지음 | 길벗 | 2022

**3위 오래 준비해온 대답: 김영하의 시칠리아**  
김영하 지음 | 북복서가 | 2020

**4위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원지 지음 | 상상출판 | 2019

**5위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버 하루데이가 기록한 낭만적인 도시 풍경**  
하루 지음 | 상상출판 | 2022

### 테마여행 인기대출도서



1위

**열두 달 지하철 여행**  
김성은 지음 | 한태희 그림 | 책읽는곰 | 2021



2위

**스타벅스 지리 여행**  
최재희 지음 | 북트리거 | 2022

**3위 기차 타고 부산에서 런던까지**  
정은주 지음 | 박해량 그림 | 키다리 | 2019

**4위 교과서가 쉬워지는 주말여행(2022~2023)**  
김수진, 박은하 지음 | 길벗 | 2022

**5위 제주 미식 여행(2022~2023):  
제주에서 꼭 가야 할 최고 맛집 147**  
문신희 외 3인 지음 | 디스커버리미디어 | 2022



최근 6개월간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여행에세이는 《여행의 이유》였다. 김영하 작가를 비롯한 여행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작가들의 솔직담백한 여행에세이가 큰 인기를 끌었다. 테마여행 분야는 《열두 달 지하철 여행》이 인기대출도서로 선정되었다. 교통, 주말, 미식 등 테마가 있는 특별한 여행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





## | 재 영 |

망가진 책을 수선하는 '재영 책수선' 대표.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관찰자이자 수집가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개인 작업실에서 책의 기억을 관찰하고, 파손된 책의 형태와 의미를 수집한다. 소중한 책에 담긴 의뢰인의 추억을 존중하며 책이 수선되어 재탄생하는 과정의 기록들을 모은 《어느 책 수선가의 기록》을 출간했다.

## 망가진 책에 얹힌 반짝이는 기억들

### 책 수선가 재영

취재 신수빈 사진 정인수

파손된 책의 흔적들을 관찰하고 기록할 때 가장 큰 재미와 행복을 느끼는 책 수선가 재영. 재작년에 그녀는 그동안의 책 수선 과정과 작업들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책으로 펴냈다. 재영은 소중한 추억이 담긴 책이 오랫동안 튼튼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또 책 수선을 통해 새로운 추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언제나 망가진 책들을 기다린다. 망가진 구두를 수선하고 맞지 않는 옷을 수선하듯, 파손된 책을 수선하는 책 수선가 재영의 시간을 들여다본다.

## 01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간단한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부터 '재영 책수선'을 운영하고 있는 책 수선가 '재영'이라고 합니다. 상호명에서 '책 수선'이라 말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책을 포함한 지류 전반에 걸친 복원, 수선, 보관 및 관리 등을 하는 보존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업종의 가장 정확한 명칭은 '지류/책 보존가'입니다. 망가지거나 오래된 책과 종이들이 다시 제 기능을 하거나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02

대중에게 낯선 직업인 책 수선가의 길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와 책 수선의 제일 첫 단추는 대학원을 미국에서 다니면서 부터였어요. 처음부터 책 수선가가 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중간의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이 작업으로 방향을 그려나간 느낌입니다. 대학원 전공을 북아트(Book arts)와 페이퍼메이킹(Paper making)을 선택했었는데요. 사실 학부 때 전공과는 전혀 다른 분야들이라 제게는 관련된 기본적인 기술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중에 지도교수님이 책과 종이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과 기술을 단시간에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책 수선가로 일하는 거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니던 학교에 있던 '책/지류 보존 연구실'에 무작정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도구들을 관리하는 법, 재료나 쓰레기를 정리 정돈하고 기본적인 도구들을 쓰는 법부터 배웠고, 차차 본격적인 책 수선 관련 기술들을 익히기면서 이 작업의 매력에 점점 빠지게 됐어요. 대학원 전공을 위해 잠깐 기본적인 것들만 배우고 그만두려고 했던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03

책 보존 연구실에서 일하다가 개인 작업실을 여셨잖아요. 시행착오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연구실에선 책 수선 일에만 신경을 쓰면 됐었는데 작업실을 열고 나니 청소부터 시작해서 정산, 홍보 모든 것들을 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담당해야 할 업무가 많아지니 체력이 항상 부족해서 퇴근 후엔 반려견과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게 저의 일상입니다. 나름 저에게는 다음날을 위한 집중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좋은 변화로는 책이라는 물성에 대해 제 태도가 많이 유연해졌다는 점이에요. 지금 의뢰로 만나게 되는 책들은 수선을 맡길 정도로 애정을 듬뿍 받는 책들이라 보니까 한 권 한 권이 희귀 서적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기술을 넘어서서 각 책에 담긴 감정도 제가 많이 헤아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감정들은 사실 개인 작업실을 열고 나서야 저도 경험하게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책에 대한 저의 시선도 함께 다양해지고, 성장한 것 같아요.

## 04

지금까지 몇 권의 책을 수선하셨나요? 손상된 책을 수선하는 과정도 궁금해요.

단행본을 준비하는 동안 궁금해서 한번 세어본 적이 있어요. 연구실에서 일하는 3년 반 동안은 대략 최소 1,800권





개인 작업실에서 책 수선 작업을 하고 있는 재영

이상을 작업했고, 작업실을 열고 나서는 지금까지 대략 200권 정도의 책을 작업했더라고요. 책 수선이라는 일이 워낙 각 책의 상태마다 필요한 조치도 다르고 종이의 상태에 따라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일이라서 일괄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의뢰로 들어온 책을 대할 때 우선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넘겨보면서 꼼꼼히 책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을 책 수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 05

**국내에서 책 수선가로 활동한 지 어느덧 6년 차가 되셨어요. 그동안 작업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다면요?**  
최근 들어 의뢰자들의 책을 보며 부쩍 함께 몽클할 때가 있었어요. 다름 아닌 저조차도 잊고 있던 저의 어릴 적 ‘그 책’을 만날 때입니다. 추억이 많이 담긴 어릴 적 좋아했던 책들을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어릴 때 좋아했었지만 그동안 잊고 살았던 책을 의뢰로 만나게 되면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또 그런 책이 의뢰로 들어온 날은 괜히 집에 가서 다시 찾아서 읽어본다거나 아니면 새로 구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기억에 남는 책들로는 디즈니 그림 명작 시리즈의 《추위를 싫어하는 펭귄》이라던가, 《에이브(ABE) 전집》 등이예요.

## 06

**작업 전에 의뢰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신다고 들었어요. 의뢰자의 추억이 담긴 책을 고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선 작업에 필요한 소스들을 위해 의뢰자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되, 그 책에 담긴 사연이나 감정의 경우는 철저히 제삼자로 남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작업자로서도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책에 담긴 사연과 감정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이입하면 오히려 실례가 될 수도 있고 또 작업에도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서 그 선을 적절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업 결과물을 보고 만족하시는 의뢰자분들을 보면 함께 기쁘기도 한데요. 그 순간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남기려고 하진 않아요. 의뢰자와 그 책에 대한 제 나름의 존중의 방법입니다.

## 07

**작가님처럼 책 수선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책 수선가가 되기 위해서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전공들을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정착하게 된 경우고요. 물론 좀 더 수월하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처럼 북아트나 페이퍼메이킹 등의 책과 종이 관련 학과를 전공한다든지, 아니면 문헌정보학과 혹은 화학과를 전공해도 도움이 많이 돼요. 한국에서는 여러모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적인 분야라서 그렇긴 하지만, 책이라는 물성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과 재료에 대한 이해와 연습을 충분히 동반하신다면 사실 혼자서도 시작해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08

**본인이 생각하는 책 수선가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제가 책 수선 일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이 일이 망가지고 파손된 책의 형태를 가장 손쉽게 앓은 자리에서 가장 편하게,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수선 후에 마감해진 책의 모습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파손된 모습의 책에 더 큰 매력을 느끼는 책 수선가입니다. 그 파손은 애정의 훈장일 수도 있고, 무관심의 상처일 수도



책 수선 과정과 작업과정들이 담긴 《어느 책 수선가의 기록》

있는데, 그 흔적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가장 큰 재미와 행복을 느낍니다.

## 09

**그동안의 책 수선 기록을 엮어 책을 내셨어요. 《어느 책 수선가의 기록》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어느 책 수선가의 기록》은 전자책 구독 사이트인 리더셀렉트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연재했던 글에 좀 더 많은 에피소드들을 추가로 적어 출간한 책입니다. 책 수선이라는 분야가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많은 독자분들한테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글이 되기를 원했고요. 그간 의뢰로 들어왔던 책들 중 일부를 각각 에피소드 형태로 책 수선가의 입장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뭐랄까 책을 만지고 쓴 일종의 독후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관찰일지라고 해야 할까요? 수선 전후와 중간 과정 사진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 10

**앞으로 어떤 책을 기록하고 싶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독자들의 반응, 후기도 궁금합니다.**

저는 꾸준히 망가진 책의 모습을 기록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또다시 책이 될지 다른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또 책을 쓰게 된다면, 아직은 제 머릿속에서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책 수선이라는 분야가 가진 가능성과 상상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기뻐하시는 분, 먹먹한 감정에 울음을 터트리시는 분, 신기해하시는 분, 의외로 특별한 반응은 없으신 분 등 다양해요.

그건 그 책과 의뢰자 둘 사이의 시간에서 파생된 감정들이다 보니 저는 방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지만, 그게 어떤 감정이든 간에 대부분은 저에게 책에 대해 긍정적인 어떤 밝은 기운을 나눠주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이 책이 사라지거나 입지가 좁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시대에서 ‘책이 이렇게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책 수선까지 받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 11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무엇인가요? 그 책을 고르신 이유도 함께 들려주세요.**

저는 발터 뢰어스의 《꿈꾸는 책들의 도시》를 추천합니다. 책에 관해 신나면서도 기분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책이에요. 저는 일종의 기술자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기술에 갇혀 정확하고 확실한 현실에 안주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런 직업적인 면이 주는 날 선 쾌감도 있지만, 가끔은 그런 면이 답답하고 또 책에다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긴장감 때문에 살짝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 저에게 《꿈꾸는 책들의 도시》는 책에 대해 너무나 재미있는 상상력을 들려주었거든요. 긴장을 풀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읽을 수 있는 즐거운 책입니다.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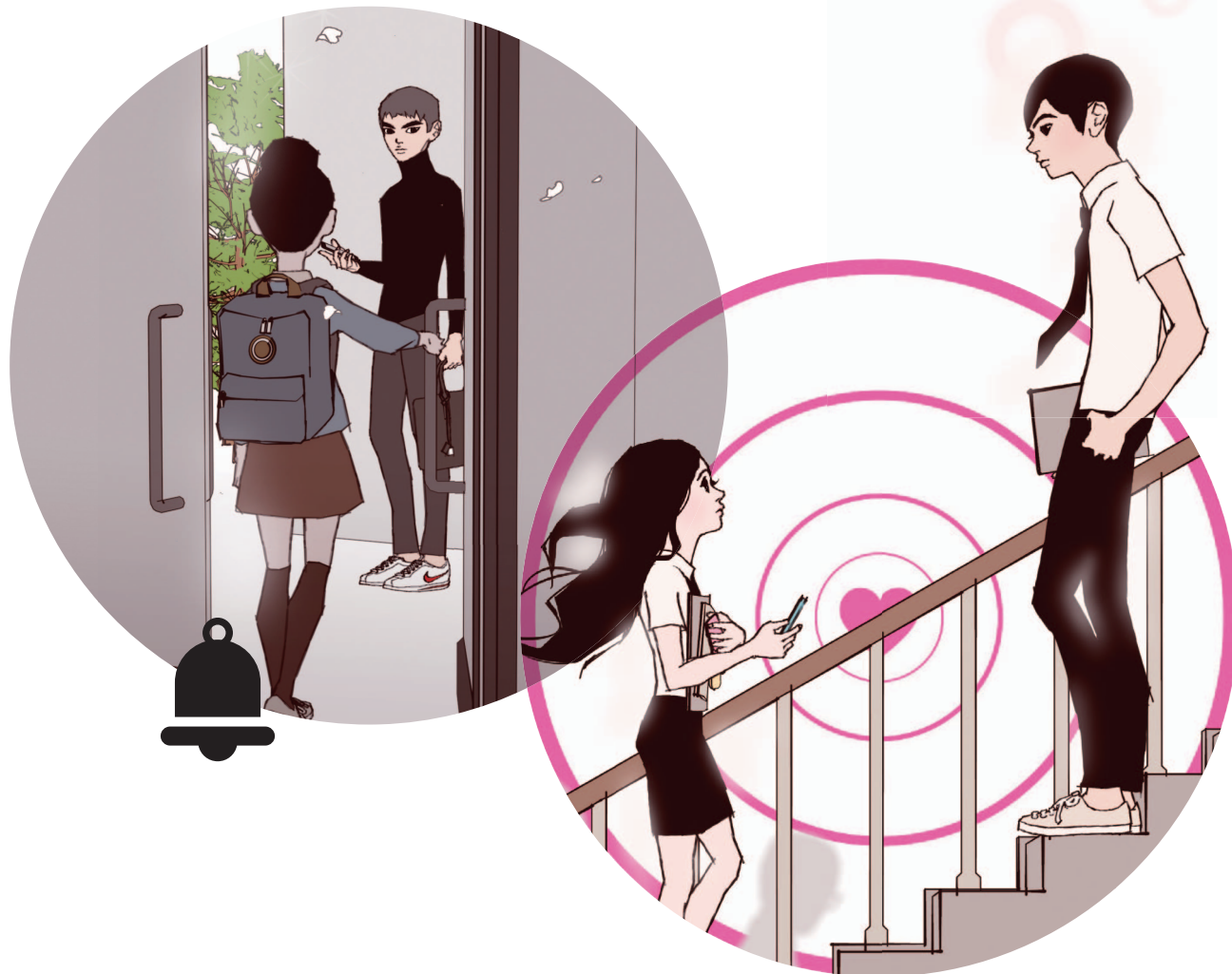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도서관>을 읽고 계신 독자분이라면 분명 평소에도 책과 도서관을 좋아하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간이에요. 하지만 요즘 여러모로 그 존재 자체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도서관과 책의 가치가 더욱더 절실하고 크게 다가옵니다. 도서관과 책이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해주시고 관련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책 수선가 재영의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좋아하면 울리는’ 좋아요 시대를 살아가는 법

글 정덕현 사진 © 천계영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SNS상에서는 이제 이런 부탁들이 공공연하게 됐다. 구독자가 몇백만이고, 그가 올리는 영상의 ‘좋아요’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가 그 사람의 인기를 대변하고, 그 인기는 곧 돈으로도 환산될 수 있는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의 시대다. 물론 인플루언서들 중에는 독보적인 정보를 통해 필요한 이들을 끌어모은 이들도 적지 않지만, 어떤 이들은 그저 외모가 매력적이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구독자들을 끌어모으기도 한다. 외모지상주의가 잘못된 시대착오적 가치라는 걸 모르는 이들은 없지만, SNS라는 미디어 창에서는 어떻게든 예쁘게 보이기 위해 이른바 ‘뽕샷’ 처리된 사진을 올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는가에 집착한다. 외모가 돈과 권력의 척도가 되기도 하는 시대가 만들어진 것에, SNS라는 미디어는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 실시간으로 ‘좋아요’ 경쟁을 벌이게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욱 이미지에 집착하게 됐기 때문이다.

### { <좋아하면 울리는>, 청춘멜로에 담아낸 사회적 의미 }

천계영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은, 학교를 배경으로 김조조(김소현), 황선오(송강), 이해영(정가람) 같은 청춘들이 보여주는 달달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은 드라마다. 그건 이 드라마에 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좋알람’이라는 어플 때문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반경 10미터 안에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는 이 어플은 자신의 마음을 외부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관계에 변화를 만들어낸다.

켜놓기만 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이 어플은, 사랑의 감정표현을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만들어버린다. 즉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마음을 표현할까 말까 고민하고 때론 숨기며 가슴앓이를 하기도 하는 그런 감정들은, 이 어플과 함께 사라져버린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이 어플을 켜 이들은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한다. 또 정반대로 아직 생각도 하지 않은 어떤 이의 마음이 불쑥 전달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되기도 한다. 즉 소통 수단으로서 새로운 미디어

(어플)의 등장은 우리의 관계에도 변화를 만든다는 걸 이 드라마는 보여준다.

그런데 ‘좋알람’이 울리는 조건으로서 중요해지는 건 빈부의 문제와 외모 같은 외적 조건들이다. 잘생긴 외모는 그 사람이 아직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알람’을 울리게 만든다. 외모는 또한 그 사람의 빈부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스타일을 내는가 하는 게 모두 그 사람의 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네 집에서 구박받으며 살아가는 김조조와, 잘 생긴데다 부잣집 아들인 황선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지만 선오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이해영은 그 외적 조건들 때문에 ‘좋알람’ 사정이 다르다. 일종의 ‘알람의 빈부격차’가 벌어진다. 누군가는 길거리를 지나기만 해도 계속해서 알람이 울리지만 누군가는 단 한 개의 알람도 없어 쓸쓸하게 소외된다. 그렇다면 외적 조건이 인기가 되고 돈과 권력이 되는 시대를 보여주는 <좋아하면 울리는>은 그저 가상과 상상의 이야기일 뿐일까. 그렇지 않다. ‘좋알람’은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18살의 조조와 선오는 서로의 좋알람을 울리며 연인 사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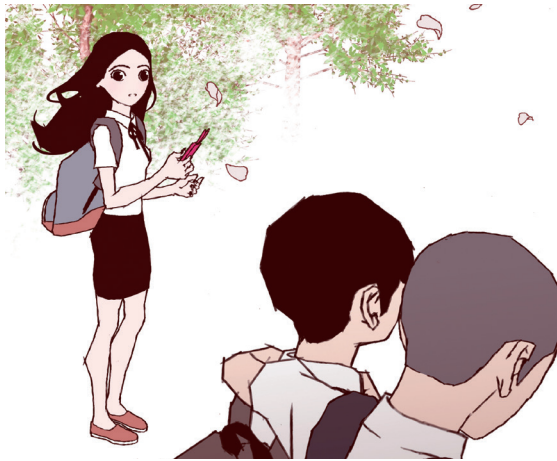
켜놓기만 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이 어플은, 사랑의 감정표현을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만들어버린다.



## { '좋아요' 시대의 양면성 }

매일 같이 SNS에 자신이 뭘 먹고 어딜 가고 무얼 하는가를 사진으로 찍어 공유하는 건 어쩌다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전시'되고 '평가'되는 사회를 철학자 한병철은 '투명사회'라고 불렀다. 지금도 누군가가 나의 사생활을 찍어 올린다면 '범죄행위'라 여겨질 테지만, 우리는 이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그걸 통해 외부에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이 '투명사회'가 끝없이 경쟁적으로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더 많은 구독자와 '좋아요'를 얻기 위한 안간힘이 들어간다. 끝없이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꺼내 놓고 대결하는(?) 이것은 누가 더 행복한가를 경쟁하는 이른바 '행복 배틀'이다. SNS가 만들어낸 이러한 변화가 '좋알람'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변화와 뭐가 다른가.

무엇보다 '좋아요'라는 이미 정해진 감정표현의 단순화는 그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힘을 발휘한다. <좋아하면 울리는>에서 어느 날 갑자기 황선오를 보고는 켜진 '좋알람'이 김조조의 마음 속에서 벌어진 많은 감정과 생각들을 어떻게 다 전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김조조를 짝사랑하지만, 절친이자 자신이 사는 집주인 아들인 황선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해영의 그 복잡한 심사를 좋알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선오와 해영은 소꿉친구이자 베스트프렌즈이지만 둘 다 조조를 좋아하게 되면서 운명처럼 삼각관계가 시작된다

무엇보다 '좋아요'라는 이미 정해진 감정표현의 단순화는 그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힘을 발휘한다.



겉모습만이 아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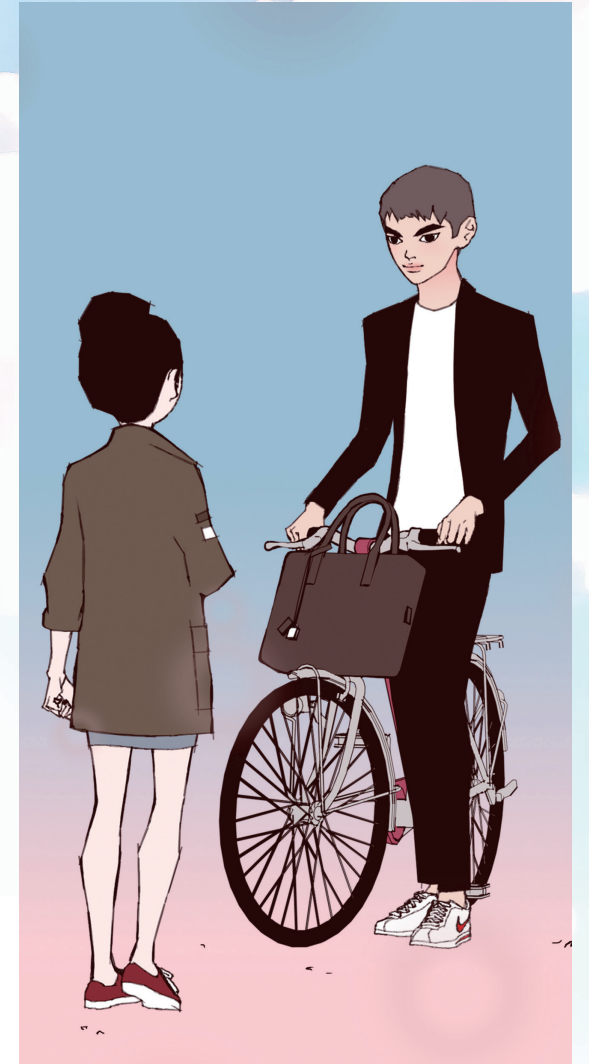
진짜 그 사람의 내면에 다가가려는 노력,  
이건 진정한 좋은 관계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 아닐까 싶다.

## {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

마찬가지로 SNS에서 지나치게 단순화된 '좋아요' 버튼 하나로 다양한 저마다의 감정들을 드러내기 어렵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생겨났고, 버튼도 '좋아요'에서 '최고예요', '힘내요', '웃겨요', '멋져요', '슬퍼요', '화나요'로 많아졌지만 이것 역시 감정표현의 단순화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무엇보다 긍정적 표현이 훨씬 많고 부정적 표현이 몇 안 되는 이러한 버튼은 지나치게 '긍정성'을 증식함으로써 "타자와 이질적인 것(부정성)을 대면할 기회를 박탈한다"고 한병철은 말한다.

이미 우리는 직접 대면보다 비대면으로 '좋아요'를 더 많이 누르고, 그 수치들이 가치로 환산되어 돈과 권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새로운 미디어가 만들어낸 수치가 진짜 우리네 삶의 가치가 될 수 있을까. 겉모습만이 아닌 진짜 그 사람의 내면에 다가가려는 노력, 이건 진정한 좋은 관계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 아닐까 싶다. ㉠

※ 콘텐츠 내용은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의 줄거리로 웹툰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처절한 가족사를 모두 이해하고 감싸주는 해영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 | 정덕현 |

대중문화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 각종 방송 활동, 강연 등을 통해 대중문화가 가진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있고,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예술상 심사위원이다. 저서로 《드라마 속 대사 한 마디가 가슴을 후벼팠 때가 있다》, 《다큐처럼 일하고 예능처럼 신나게》 등이 있다.



# 19세기판 지구마불 세계여행

## 쥘 베른 《80일간의 세계일주》

글 김규범 사진 위키피디아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2023년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더는 방역 규제로 일상이 제약받지 않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출입국 규제가 걷힌 뒤 처음 맞이하는 여름휴가 시즌은 많은 이들의 해외여행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중이고, 이에 맞춰 방송 매체에서도 ‘여행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종영한 <지구마불 세계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은 유명 여행 크리에이터 3인이 ‘세계여행 게임’에 참여해 ‘영상 조회수 경쟁’을 벌이며, 총 3주간 지구 5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여행하는 내용을 담아 ‘세계여행’과 ‘경쟁’을 결합한 아이디어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이디어로 엄청난 인기를 얻은 콘텐츠가 진작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 출신 소설가 쥘 베른(Jules Gabriel Verne, 1828~1905)의 1873년 작 소설 《80일간의 세계일주》입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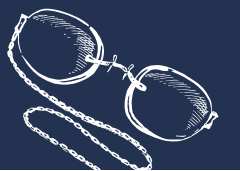
매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면도할 물의 온도가 조금만 달라도  
하인을 해고할 정도로  
빈틈없는 영국 신사 필리어스 포그.



#2



늘 놀러 가는 리폼 클럽에서 그는  
인도의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어  
80일이면 세계를 일주할 수 있다는  
기사를 우연히 접하게 된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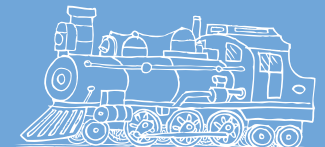
다소 회의적인 리폼 클럽 회원들에게  
포그는 정확히 80일 만에 세계일주를  
할 수 있다고 장담하며  
직접 해내겠다고 선언한다.



#4



그는 전 재산의 절반인 2만 파운드를  
내기에 걸고, 나머지 절반인  
2만 파운드를 여행 경비로 챙겼다.  
과연 세계일주는 성공할 수 있을까?





## 쫓고 쫓기면서 세계 여행 중입니다

- 인물관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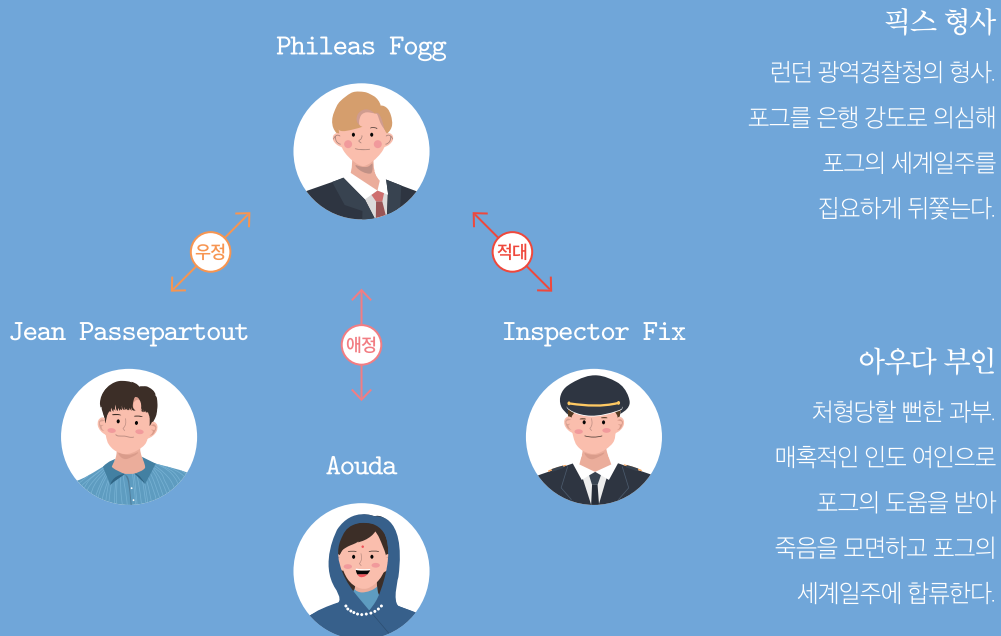
### 주인공

#### 필리어스 포그

40대 영국 신사.  
빈틈없이 계획적인  
삶을 살다가 한순간의 내기로  
'80일간의 세계일주'에  
도전한다.

#### 장 파스파르투

포그의 새로운 하인.  
프랑스 출신의 유쾌한  
성격으로 주인인 포그를  
도우며 세계일주를 함께한다.



#### 픽스 형사

런던 광역경찰청의 형사.  
포그를 은행 강도로 의심해  
포그의 세계일주를  
집요하게 뒤쫓는다.

#### 아우다 부인

처형당할 뻔한 과부.  
매혹적인 인도 여인으로  
포그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모면하고 포그의  
세계일주에 합류한다.

### 작품 읽기 준비 운동.경험과 결합한 상상

작가 '쥘 베른'은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것을 즐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3대의 요트를 보유하고 항해 여행을 나가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작가의 경험은 그의 상상과 결합에 고스란히 작품으로 이어졌고 《해저 2만리(1869)》, 《80일간의 세계일주(1873)》, 《15소년 표류기(1888)》 등 공상, 모험, SF 소설이 탄생했습니다. 이중 《80일간의 세계일주》는 작가의 모험소설들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명작입니다.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고 80일 동안의 세계일주에 나선 주인공이 '가보지 못한 나라', '잘 알지 못하는 나라'를 모험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갑자기 끊긴 철로', '광신도의 등장' 등 긴장감 넘치는 상황과 마주하는 모습을 그려 큰 인기를 얻었고, 여러 차례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습니다.

### 줄거리 알아보기. 박진감 넘치는 모험담

주인공은 '필리어스 포그'입니다. 40대 영국 남성으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포그는 숫자와 시간관념이 철저한 인물로 완벽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일상생활도 거의 분 단위로 계획하는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장 파스파르투'라는 하인이 있습니다. 세계일주가 결정된 당일에 새로 고용된 하인으로 다양한 직업 경험이 있고, 쾌활한 성격에 재주도 많고 힘도 센 인물입니다.

1872년 10월 2일, 영국의 한 은행에 잠입한 강도가 5만 5,000파운드(우리 돈 약 100억 원 이상)라는 거액을 훔쳐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그는 늘 사람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리폼 클럽'이라는 곳에서 은행 강도가 어디로 도망갔을지 이야기 나누던 중, 신문에 실린 '80일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경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자 포그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로 인해 무려 4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린 세계일주 내기가 시작됩니다.

출발 시각: 1872년 10월 2일 20:45

제한 시각: 1872년 12월 21일 20:45

즉시 여행을 시작한 포그와 파스파르투, 하지만 이들 모르게 함께 여행을 시작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런던 광역경찰청의 형사 '픽스'입니다. 픽스는 앞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의 범인을 포그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량처럼 지내는 포그가 거금으로 내기를 하는 것이 수상했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이들의 여정. 영국에서 출발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프랑스와 이탈리아, 이집트를 거쳐 인도 뭍바이에 도착한 이들은 그즈음 새로 개통된 '인도 대륙횡단 열차'를 이용해 인도 콜카타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노선만 개통된 열차로 인해 한방에 목적지로 이동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꼬끼리를 타고 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길에 '필라지 사원'이라는 곳에서 산채로 화장당할 위험에 처한 '아우다'라는 여성을 구출하게 됩니다. 아우다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인도 여성으로 부유한 상인의 딸로 태어나 나이 많은 권력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 후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고, 아우다는 지역 풍습에 따라 남편과 함께 화장당할 위기에 처해있던 것입니다.

포그와 파스파르투는 그녀를 구출해 함께 여행을 시작했고 콜카타에 도착해 홍콩으로의 이동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이때 처음부터 이들을 따라오던 픽스 형사의 계략으로 체포돼 법정에 서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포그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옥에서 엄청난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나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제 이들은 홍콩, 상하이, 일본을 거쳐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의 뒤를 쫓던 픽스는 파스파르투에게 정체를 발각당해 어쩔 수 없이 여행에 합류하게 됐고, 네 사람이 함께 미국 대륙 횡단 길에 오릅니다. 이들은 무너지기 직전의 다리를 통과하기도 하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기도 하는 등 해프닝을 경험하며 어렵사리 뉴욕에 도착해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면 내기에서 이길 조건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계획하던 배를 놓치는 바람에 급히 항구에 정박 중인 화물선을 섭외해 영국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무사히 출발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이 도착한 시각은 1872년 12월 21일 20시

50분, 성공조건인 20시 45분보다 5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포그는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함께 여행한 파스파르투와 아우다 또한 아쉬운 건 마찬가지였죠. 이때 아우다가 포그를 찾아가 위로의 말(=선물)을 전합니다. "저, 혹시 저를 아내로 맞아주시겠어요?" 이렇게 포그는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들이 동쪽으로 지구를 도느라 하루를 벌게 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내기에도 이기게 된다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 자유로운 상상, 즐거운 상상

이 작품의 무대는 전 세계입니다. 이렇게나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이야기임에도 각 지역의 특색이 잘 드러나도록 사건을 연결 짓는 작가의 서술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작가가 방구석에서 상상만으로 작품을 집필했다면 자칫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이야기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것을 즐긴 인물로 알려진 작가 쥘 베른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상상과 결합해 만들어진 《80일간의 세계일주》는 현실과 비현실이 적절히 섞인 매우 재미있는 작품으로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엔데믹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세계일주'를 경험한다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 직장, 비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 세계일주를 간접경험 할 수는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처럼 리얼리즘을 앞세우는 장르가 아닌, 소설이기에 더욱 자유로운 상상이 가능합니다. 작품 초반부터 주인공 포그는 부자로 등장하고, 돈을 펄펄 쓰며 세계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품을 읽고 '만약 나라면 어떻게 여행했을까?'라는 상상에 빠져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아울러 포그가 세계일주를 통해 상금만 얻은 게 아니라, 동료와 아내까지 얻게 되었다는 점을 통해 나와 가까운 이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 김규범 |

독서라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아서 책을 읽고 책을 소개하고 감상을 나누는 공간인 유튜브 채널 <사월이네 북리뷰>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고전 안내서 《고전의 고전》을 집필했다.



# 무지개 칼과 장난감 총이 향하는 곳

정세랑 《보건교사 안은영》

글 신수빈



고등학교 보건교사 안은영. 평범한 직업과 이름이지만 안은영은 평범한 보건교사가 아니다. 그녀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아 온 '퇴마사'이자 '심령술사'다. 어느 날, 그녀는 학교에서 미스터리한 현상과 마주하게 되는데... 학교엔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 보건교사 안은영의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보건교사 안은영》(리커버 특별판)

정세랑 지음 | 민음사 | 2020



육망덩어리 '젤리'를 보는 특이한 능력

비비탄 총과 무지개색 장난감 칼. 소설 속 주인공 보건교사 안은영의 핸드백 속에 들어 있는 물건이다. 어째서 멀쩡한 30대 여성이 이런 걸 매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걸까. 속상해도 어쩔 수 없다. 친구들에게는 늘 '아는 형'이라 놀림받는 소탈한 성격의 사립 M고 보건교사, 그녀에겐 이른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은영은 어릴 때부터 죽은 사람이 보였다. 꼭 죽은 사람만 보는 것은 아니었다. 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분 나쁜 환영들도 보이니 말이다. 은영이 보는 것은 미색 젤리 같은 응집체로, 종류와 생성 시기에 따라 점성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결국 그녀는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육망의 잔여물인 '젤리'를 무찌러야 하는 퇴마사의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장난감 칼과 총에 은영 본인의 기운을 입히면  
젤리 덩어리와 싸울 수 있었다. 비비탄 총은 하루에  
스물두 발, 플라스틱 칼은 15분 정도 사용 가능하다.  
이집트산 양크 십자가와 터키의 이블 아이, 바티칸의  
묵주와 부석사의 염주, 교토 신사의 건강 부적을  
더하면 스물여덟 발, 19분까지 늘일 수 있다.  
보건교사 안은영의 삶은 이토록 토테미즘적이다.  
-《보건교사 안은영》중에서-

어느 날 은영이 근무하는 보건실로 한 남학생이 찾아왔다. 은영은 학생의 목 뒤에 박힌 정체불명의 가시 같은 것을



빼냈다. 학생이 놀랄까 봐 차마 말을 못했지만 그것은 어떤 알 수 없는 동물의 손톱, 비늘, 뼈 중 하나인 것 같았다. 그 애의 목덜미에 핏줄을 타고 독기가 번져 가는 걸 보았는데 얼마나 나쁜 게 들러붙은 건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아무래도 이 학교엔 뭔가가 있다. 결국 은영은 가운 안, 허리 뒤쪽으로 비비탄 총과 장난감 칼을 꽂고 보건실을 나선다.

은영이 다니는 사립 M고는 근래 아이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한 전적이 있기도 했다. 학교 지하실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걸 느낀 은영은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가 장난감 칼로 묵은 반목과 불명예와 수치의 잔여물들을 뺐다. 그런데 하필, 그 장면을 한문 교사인 홍인표에게 들켜고 만다. 학교 설립자의 후손으로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교직을 택한 인표에게 은영의 행동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그도 그럴 것이 멀쩡하게 생긴 교사가 무지갯빛이 나는 플라스틱 칼을 들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휘두르고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은영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특이한 능력을 받아들이며 산 지 오래다. 운동 중이라며 능청스럽게 대꾸한 은영은 인표의 몸에 둘러싸인 거대한 에너지 장막을 보고 감탄한다. 이후 지하 3층으로 내려간 두 사람은 흙바닥에서 '압지석(壓池石)'이라 적힌 납작한 돌을 발견하고, 인표가 돌을 뒤집자 땅이 흔들리고 학교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 독보적인 캐릭터, 안은영의 탄생

지진과 함께 복도에서 쓰러진 학생들. 맨살에 뭔가가 박혀 있다. 다시 일어난 학생들은 마치 좀비처럼 일제히 옥상을 향해 뛰어갔다. 공격을 받지 않은 학생들도 맹목적으로 계단을 오르는 친구들을 말려 가며 옥상으로 따라가야 했다. 학생들은 마치 자살하려는 사람처럼 옥상 난간 철망을 기어오르는 기이한 행동을 보인다. 한편 지진의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은 은영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장난감 칼을 손에 꼭 쥐고 지하실을 벗어나 옥상을 향해 돌진한다. ‘왜 학생들이 집단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일까?’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은 뜻밖의 인물인 인표가 해결한다. 아까 압지석이라 적힌 돌을 보고 학교 부지가 이전에 연못이었음을 인지한 인표가 큰할아버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기 때문.


예부터 이 연못은 정인을 잃은 젊은이들이 몸을 던지는 곳이었으나, 최근 그 수가 견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자살을 위장한 타살 시신이 버려지는 등의 폐단이 있다. 게다가 시신을 뜯어먹은 민물고기와 두꺼비, 도마뱀 등이 살이 올라 극성이다. 그래서 관에서 명을 내려 흙으로 못을 메우게 했다.

-《보건교사 안은영》중에서 -

은영이 옥상에서 장난감 칼로 학생들의 뒤통수를 열심히 후려쳐 기절시키던 중, 물고기와 개구리 혹은 뱀인 듯한 머리가 운동장 흙을 헤집고 올라오고 있었다. 학생들 목에 박혔던 게 이 괴물의 비닐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 괴물 젤리는 은영의 눈에만 보인다. 뒤늦게 옥상에 온 인표에게 압지석의 비밀을 전해 들은 은영은 총알이 떨어지자, 인표의 손을 잡고 강력한 에너지를 흡수해 이상한 괴물 젤리를 물리치고 학생들을 구한다.

사건을 해결하는 데 인표의 에너지가 큰 역할을 했다. 이제 두 사람은 학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을 맞잡는 사이가 된다.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면 굳건한 의지와 때때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은영은 자신이 지닌 능력을 악용하지 않고 그녀만의 발랄함과 굳건함으로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사람을 해치는 젤리들을 가차 없이 응징한다. 또한 사연이 있는 영혼을 조용히 쓰다듬어 주기도 한다.

플라스틱 칼과 비비탄 총으로 악귀와 혼령을 물리치며, 통굽 슬리퍼를 신고 뛰어다니는 보건교사 안은영의 모험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소설 속 젤리처럼  
몽글몽글한 하루를 여는  
7+8월의 레시피 ‘요구르트 젤리’**

말랑말랑한 간식이 생각나는 오후. 소설에 등장하는 젤리로 몽글몽글한 하루를 느껴보세요. 시원하면서도 탱탱한 요구르트 젤리를 함께 만들어봅시다.

**재료** 요구르트 400g, 우유 200mL, 설탕 40g, 레몬즙 1큰술, 판젤라틴 12g, 과일 통조림(생략 가능)

- ① 판젤라틴은 찬물에 10분 정도 불려준다.
- ②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설탕을 넣고 잘 녹여준다.
- ③ 물에 불린 판젤라틴은 물기를 꼭 짜서 따뜻한 우유에 넣어준다.
- ④ 요구르트를 넣고 잘 섞은 다음 레몬즙을 넣어준다.
- ⑤ 네모난 용기에 ④를 붓고 통조림 과일을 취향껏 넣는다.
- ⑥ 랩으로 밀폐한 후 3~4시간 정도 냉장보관해 굳혀주면 시원하면서 탱글탱글한 요구르트 젤리 완성!



# 함께 나누다

오늘의

도서관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8 내 마음의 문장들  
2023년 여섯 번째 필사  
정지용 <바다 9>

59 오늘의 사진관  
여름 휴가철,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국립중앙도서관

# NEWS

01

## 제17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국립중앙도서관은 7월 3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전국의 사서와 도서·문화기관 종사자, 대학(원)생 개인 또는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자유 주제 이외에도 ‘초

개인화 시대,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주제로 선정하여 개인별 관심사가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국민 품으로 다가가는 K-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찾아보고자 한다.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총 8편의 입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편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편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상금 150만 원, 장려상 5편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상 및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10월 중 개최되는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8주년 기념 협력세미나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작들은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서비스 기획·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집으로 제작, 전국 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응모 양식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https://nl.go.kr>)의 ‘도서관 소개 → 도서관소식 → 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2년(제16회)까지의 우수작 역시 누리집 ‘도서관 소개 → 발간자료 → 기타자료 → 기타’에서 볼 수 있다.

📞 기획총괄과 02-590-0653

02

## 한미 미래세대와 함께 떠나는 파주 지역 인문학 탐방



국립중앙도서관은 6월 24일(토) 한국과 미국 청년 30명이 함께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나의 책, 나의 인문기행’ 파주편을 진행했다. ‘나의 책, 나의 인문기행’은 인문학 강연과 지역탐방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서 이번 파주편은 특별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두 나라의 미래세대가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주역으로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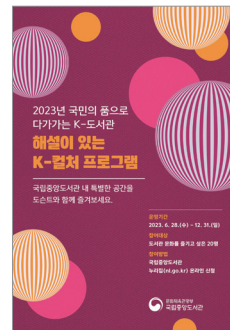
주한 미군과 그 가족, 해외문화홍보원의 K-인플루언서 회원, 외교부 서포터즈 모파랑과 위고(We Go) 서포터즈 등으로 구성된 탐방단은 미국군참전비 헌화, 갤러리 그리브스와 오두산 통일전망대, 한국근현대사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의미 있는 일정이 이어졌다.

탐방 현장에서는 특별강연도 마련되었다. 먼저 《대한민국과 국제정치》의 저자인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한미동맹 70년사와 양국 청년세대의 사명’을 주제로 이번 탐방의 포문을 열었으며, 오후에는 《전쟁과 역사》 저자인 K인문경영연구원 임용한 대표의 생생한 현장 설명과 함께 탐방지를 둘러보고, ‘6.25전쟁과 한국근현대사’ 강연을 끝으로 여정을 마무리했다.

📞 국제교류홍보팀 02-590-6321

03

## 특별한 해설에 초대합니다! K-도서관에서 만나요



국립중앙도서관은 6월 28일(수) 오후 3시 「해설이 있는 K-컬처」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였다. 「해설이 있는 K-컬처」는 60분 동안 실감형 도서관 콘텐츠와 기획전시 등을 전문해설사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민에게 문화공간으로 더욱 다가가고자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진행되며, 6월의 1차는 ‘실감서재·지식의 길’<sup>1)</sup>, ‘담대한 프랑스 문학세계: 프랑스 공쿠르상 수상작展(기획전시)’, ‘기억과 나눔(고문헌 기증전시)’으로 구성되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체험관을 연계한 특별 강연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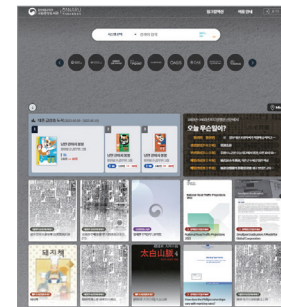
향후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http://www.nl.go.kr)>신청·참여>교육/문화프로그램>해설이 있는 K-컬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원은 선착순 20명이며, 도서관 방문 편의를 위해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도서관 간 셔틀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 지식정보서비스과 02-590-0584

1) 국립중앙도서관 실감 체험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지식정보자원과 실감형 기술을 융합한 도서관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

04

## 국립중앙도서관, K-도서관 핵심기능인 <지식정보 통합검색서비스> 개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대표 누리집’을 비롯한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미국의회도서관’ 등 국내외 지식정보시스템 18개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지식정보 통합검색서비스(onnaru.nl.go.kr), 이하 통합검색서비스’를 6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통합검색서비스’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12개 정보서비스시스템과 ‘미국의회도서관’ 등 6개 외부 연계 시스템의 지식정보자원을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다.

통합검색 대상인 국립중앙도서관 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국가전자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정책정보포털 POINT △조선총독부관보 △OASIS(웹자원 아카이브) △Open Access Korea △국가자료종합목록 △한국고문헌종합목록 △Linked Open Data △도서관정보나루 △ISNI-Korea 등으로 책 정보를 비롯하여 저자, 웹자원까지 망라적 검색을 할 수 있다.

외부연계 지식정보시스템은 △NAVER 도서 △GOOGLE 학술 검색 △해외OA(Open Access) △미의회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 TROVE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등으로 국내외 정보자원시스템과 연계되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통합검색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스스로 주제를 선정해 정보컬렉션을 만들고, 다른 이용자와도 공유할 수 있는 ‘링크 컬렉션’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 참여형 ‘링크 컬렉션’은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 다방면의 주제 분야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6315



국립중앙도서관

# NEWS

05

국립중앙도서관, '폼' 나눈리집으로 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 품으로 다가가는 K-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5월 31일(수) 대표 누리집(www.nl.go.kr)을 개편했다. 새로운 누리집은 MZ세대를 위한 도서 추천 코너를 신설하고, 직관적이고 쉬운 이용을 위해 분산되어 있던 검색창을 한곳으로 모으며 전체 디자인을 이미지화·체계화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MZ세대 서가'는 도서관에 납본되는 도서 중 20~30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도서를 매월 추천하여 제공한다. 그동안 MZ세대를 위한 전문 코너가 없었기 때문에 청년층의 도서관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존의 '신착자료' 코너도 최근 40일 이내 납본된 도서를 책 표지와 함께 소개하여 이용자들이 신착도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보기술기반과 02-590-0727

06

국가대표 K-도서관, 세계 출판인들과 만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6월 14일(수)부터 18일(일)까지 닷새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서울국제도서전(이하 도서전)'에 참가하여 국민 품으로 다가가는 K-도서관의 역할과 가치를 국내외 출판계에 적극 홍보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65년부터 시행해 온 납본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2023년 현재 1,400만 장서를 소장,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납본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전 세계에 K-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웹툰, 웹소설 등 출판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인쇄자료뿐만 아니라 온라인자료 납본 중요성도 이번 도서전을 통해 중점 홍보하였다.

또한 《동의보감》 등 국보·보물급 고서 영인본, 1950~1980년대 만화·교과서, 실감 콘텐츠, 증강현실(AR) 책카드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다양한 자료와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전시를 펼쳤다.

📍 장서개발과 02-590-0790

07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전래동화로 만나다! 'Falktales Reimagined'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한국·아랍에미리트(UAE) 전래동화 일러스트 전시 'Falktales Reimagined'를 6월 17일(토)부터 7월 16일(일)까지 도서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3년 서울 국제도서전의 주빈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와 교류·협력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아랍에미리트지부(UAEBBY)의 주관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개최한다.

'Falktales Reimagined'는 '전래동화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래동화인, 한국의 '은혜 갚은 팽' 등 5개 이야기와 아랍에미리트의 '머리 없는 낙타' 등 5개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표현되는지를 일러스트로 보여주는 전시이며, 각각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는 전래동화의 재해석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아랍문화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는 7월 16일(일)까지 휴관일(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www.nlc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73

08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6개 중학교에 찾아가는 VR 토론 프로그램 운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수도권 1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VR로 떠나는 토론 캠프'가 학생들과 교사들의 호평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VR로 떠나는 토론 캠프'는 '디지털 네이티브' 청소년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상현실 체험을 접목한 토론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은 VR게임처럼 즐겁게 논제 상황을 체험해 보고, 또래들과 토론 및 토의를 진행한다.

토론 주제는 △오랑우탄 서식지 파괴 문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상어 남획 문제의 환경 문제 △과학자 윤리 문제 △안락사 △유전자 편집 기술 문제의 과학윤리로 총 6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서에 기반한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차시별로 토론 주제와 관련된 추천 도서도 참여 학생들에게 사전에 제공한다.

올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총 184개 중학교가 지원하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으며 이 중 16개 참여 학교가 선정되었다. 하반기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VR콘텐츠를 공개 배포하고, 교사용 토론수업지도(안)를 보급하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54





국내 도서관

# NEWS

01

## 서울시 171개 공공도서관, ‘도서관은 쿨하다’ 캠페인 추진



무더운 여름, 시민들이 시원한 도서관에 방문하여 가정 소비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 전역 171개의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은 쿨하다’ 도서관 방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171개 도서관의 목록은 서울

도서관 누리집(lib.seou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위치와 운영시간은 ‘도서관 정책 → 서울의 도서관’ 메뉴 내 ‘서울의 도서관 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도서관 알림마당’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03

## 동해석곡도서관·포항남부소방서, 대형 재난사고 긴급구조 등 훈련

포항시립동해석곡도서관과 포항남부소방서는 지난 6월 남구보건소 및 포항지역 종합병원, 지역대학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형 재난사고 긴급구조 및 시민구조 역량 강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재난 현장 구급 대응훈련은 동해석곡도서관 건물에 폭탄테러로 사상자 50여 명이 발생하는 재난현장을 가정해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포항시, 남부보건소, 남부경찰서, 포항세명기독병원, 에스포항병원, 포항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인 훈련내용은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 강화 △지원기관 대응 체계 구축 △초기 인명구조 및 환자분류·응급처치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반별 임무 수행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재난의료 시스템 구축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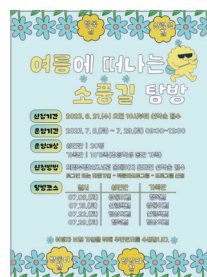
02

## 전국 유일 민간 음악도서관, ‘뮤직 파라디소’ 창원 의창구서 개관

전국 유일의 민간 음악도서관인 ‘뮤직 파라디소’가 지난 6월,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에서 문을 열었다. 파라디소는 ‘천국’이라는 뜻을 지닌 이탈리아어로,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원하는 음악을 무료로 신청하여 클래식, 발라드, 재즈, 트로트, 국악 등 장르의 구분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행복의창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뮤직 파라디소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 문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04

## 의정부정보도서관, 여름에 떠나는 의정부 소풍길 탐방



경기 의정부정보도서관에서 시민들에게 휴식의 시간과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숲속 식물의 생태를 학습하는 ‘여름에 떠나는 소풍길’ 탐방 프로그램이 열린다. 7월 8일(토)부터 29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총 4주 동안 성인반 20명과 초등학교생을 동반한 가족반 10팀으로 운영한다. 수강신청은 의정부정보도서관 누리집 책문화 프로그램 코너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도서관 누리집(www.uilib.go.kr/information)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31-828-8705)로 문의하면 된다.

국외 도서관

# NEWS

01

## 미국의회도서관, ‘코로나19 미국 역사 프로젝트’ 출범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은 일선 보건 의료 전문가와 코로나19 시기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등 코로나19 사태로 영향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년간에 걸쳐 수집 및 보존하고 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코로나19 미국 역사 프로젝트를 출범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LC의 미국민 중생활연구센터(American Folklife Center, AFC)는 미국에서 개발된 코로나19 구술사 컬렉션 다수를 모아 보여주는 온라인 자료 사이트를 제작하였다. AFC는 자국민들에게 스토리롭스(Story Cops,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존 및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에 자신의 경험담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03

## IFLA, UN 기후 변화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도서관의 생각을 공유하다

‘유엔 본기후변화회의(UN Bonn Climate Change Conference)’와 함께 해마다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기후 역량 강화 행동을 위한 대화(Action for Climate Empowerment Dialogues)는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은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사무국은 처음으로 IFLA를 이 대화에 초대하고, 6월 8일(목)에서 9일(금)까지 진행되는 행사 진행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IFLA는 이 행사에서 기후 관련 해결책 중심의 섹션을 진행하고 보안 부분에 대해 규명하였다. 향후 IFLA는 다가올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위성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 역량 강화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02

## 영국국립도서관, 50주년을 기념하다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BL)은 5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BL은 향후 7년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비전 ‘지식이 중요하다(Knowledge Matters)’를 발표했다. 개관 50주년을 맞은 BL은 2030년을 내다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연구와 영감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 지적 유산을 향유하도록 돕는다는 약속을 새롭게 다졌다. 아울러, 7월 7일(금) 저녁에는 BL의 생일 파티가 개최되고, 7월 8일(토)에는 도서관 투어와 워크숍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깊숙한 곳까지 둘러보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04

## 핀란드국립도서관, 이용자 중심의 납본 웹사이트 구축

핀란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Finland, NLF)이 새로 단장한 납본 사이트는 기존 사이트보다 시각적으로 돋보이며 이용자 중심성을 강화했다. 도서관은 보다 포괄적인 납본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본 자료 제출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웹사이트를 개편했다. 납본을 통해 받은 각 출판물은 국가장서와 핀란드 문화유산으로 보존된다. 새 웹사이트는 인쇄 자료와 온라인 자료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온라인 자료에 관한 섹션을 확장하였으며, 제출해야 하는 납본 자료 수, 납본 방법, 납본 자료 보관 방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납본 자료 이용 방법 정보도 안내한다.



## 내 마음의 문장들

시원한 바다로 훌쩍 떠나고픈 여름입니다.  
‘바다’를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해  
생동감 있게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파도가 칠랑이는 바다를 도마뱀, 연잎 등  
사물과 비유한 시의 참신한 상상력을 따라  
시 한 편, 천천히 따라 쓰고 음미해보세요.  
2023년 7+8월 함께 필사해 볼 시는  
정지용 시인의 <바다 9>입니다.

바다는 뿔뿔이

달어날라고 했다

푸른 도마뱀 떼같이

재재발렸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흰 발톱에 찢긴

산호(珊瑚)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가까스루 몰아다 부치구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시켰다

이 얼슨 해도(海圖)에

손을 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굴르도록

회동그란히 바쳐 들었다!

지구(地球)는 연(蓮)잎인 양

옴으라들고... 펴고...

- 정지용 <바다 9> 전문 -

## 여름 휴가철,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계절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책과 함께  
북강스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나만의 특별한  
도서관을 소개해주세요.

6월호 당첨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01

쉼이 필요한 날, 나만의 도서관은

(한국단편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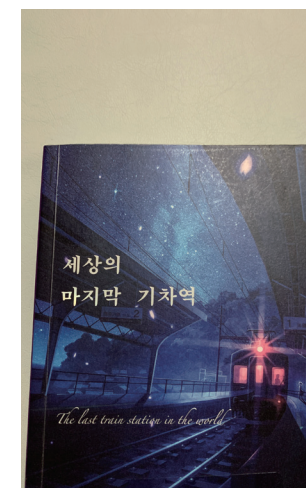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때 열심히 암기했던 한국단편소설들을 어른이 된 시선으로 읽으니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니 역사 공부도 절로 되었고요. 혼자 읽기보다는 독서 모임을 통해 함께 읽으면 동력도 생기고 다양한 다른 관점을 통해 작품을 해석해볼 수 있으니 추천해 드려요.

배○연 님

02

쉼이 필요한 날, 나만의 도서관은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이다.



저는 판타지 소설인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을 읽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만나는 순간은 슬프고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순간이겠지만, 소설 속 유령열차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고마운 책입니다.

김○진 님

여름 휴가철, 나만의 도서관은

( )이다.

QR코드 링크로 접속해  
내가 오늘 읽은 책과 짧은 감상평을  
사진과 함께 인증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바로가기

